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24년 1월 27일 (토) 제 1954 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금주의 기도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항상 주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넘치는 주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1절

2024년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국

작년 한 해 약5,000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했다. 약4,000명이 납치되었다.

약15,000개의 교회가 공격을 받거나 폐쇄되었다. 그리고 295,0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했다.

2024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월드와치리스트)에 따르면, 세계 기독교의 진원지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의 진원지로 남아있다. 오픈도어(Open Doors)의 최신 연례 보고서는 기독교인 박해가 가장 심한 상위 50개국의 순위를 매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려했던 순교자 수와 납치자 수는 작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하지만 오픈도어는 이 수치가 '절대적인 최소치'라고 강조한다. 오픈도어는 나이지리아의 대선을 앞두고 정국이 안정된 시기였기 때문에 두 수치가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중국, 인도, 니카라과, 에티오피아와 함께 교회를 향한 공격이 크게 증가한 국가로 꼽혔다.

전 세계적으로 3억 6,5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박해나 차별이 심한 국가에 살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꼴이며, 아프리카의 경우 5명 중 1명, 아시아의 경우 5명 중 2명,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165명 중 1명 꼴이다. 그리고 30년간의 추적 조사 중 네 번째로, 50개국 모두 오픈도어의 설문지 80개 이상의 문항에서 '매우 높은' 박해 수준을 기록할 만큼 높은 점수를 받았다. 50개국 순위 밖에 있는 7개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시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극심한' 박해 단계에 진입하면서 박해 국가 수는 13개국으로 늘어났다.

매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월드와치리스트)를 발표하는 목적은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2024년 보고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사이의 기간 25개국 거점 국가에서 70개국을 사역하는 오픈도어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를 바탕으로 집계되었다. 조사 방식은 국제종교자유연구소의 감사를 받았다. 1993년 처음 이 목록이 발표되었을 때는 40개국만 박해로 추정될 정도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는 78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 곳은 어디인가?

북한은 아프가니스탄에 잠시 순위를 내준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1위를 차지했다. 소말리아(2위), 리비아(3위), 에리트레아(4위), 예멘(5위), 나이지리아(6위), 파키스탄(7위), 수단(8위), 이란(9위), 아프가니스탄(10위) 등 나머지 상위 10개국은 순위가 바뀌었지만 동일하게 유지됐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국가는 나이지리아로, 4,1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했으며, 이는 전 세계 집계치의 82%에 해당한다. 오픈도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26개 국가를 월드와치리스트에 올렸으며, 이 중 15개 국가가 '매우 높음' 단계에 속했다. 말리(14위)와 부르키나파소(20위)에서는 지하디스트들이 악용하는 정부 보안의 허점이 드러났고, 에티오피아(32위)에서는 교회에 대한 공격이 급격히 증가했다.

오픈도어는 각 국가에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오만(4.2점), 부르키나파소(4.8점), 니카라과(5.3점), 알제리(6.1점), 라오스(6.6점)에서 4점 이상 상승했다. 오만은 47위에서 31위로 상승했지만, 구체적인 폭력 통계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 니카라과는 교회에 대한 정부의 공개적인 적대감으로 인해 순위가 50위에서 30위로 2년 만에 상승했다. 알제리는 당국이 개신교 교회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19위에서 15위로 올라섰으며, 46개 교회 중 4개 교회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31위에서 21위로 상승한 라오스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꼽혔다.

〈3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리고 기후 위기

글로벌 기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요청한다

기후 관련 사건은 거의 매일 뉴스에 등장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전도 사역에 방해가 되는가, 아니면 선교를 위한 기회가 되는가?

John Stott on Creation Care[1]에서, 존 스토트는 생태학적 참여가 '선교 사역'의 범주에 적절히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환경 참여를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선포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태 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가 증가하는 기후 위기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케이프타운 서약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분리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모든 창조세계를 포괄하는 것이기에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복음 선포는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복음적 이슈이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복음적 이슈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글로벌 기후 문제

2023년 7월,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그달이 사상 최고로 더운 달로 기록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발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 리더는 이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주저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변명할 필요도 없으며,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7면으로 계속〉

시 론 2면
민경엽 목사

푸른초장 4면
홍승민 목사

신앙칼럼 8면
차용호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 LILYMD. 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24학년도 봄학기 입학안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러운 동문,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듯한 교직원이 함께 기다립니다.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입니다.

모 집 학 과

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M.R.E)	2년	
	선교학석사(M.Miss)	2년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1부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 2매
6. 입학전형료($30)

신학교 부설 평신도 음악원

1)기타 | 2)키보드 | 3)하모니카

입학 상담 문의 : 646-708-1011

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접수마감 : 2024년 1월 26일(금) 오후 6시
◆ 원 서 교 부 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입 학 시 험 : 2024년 1월 27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2시
◆ 개 강 부 흥 회 : 2024년 1월 29일(월) - 1월 31일(수) 저녁 7시 45분
◆ 문 의 처 : 학감 정기태 목사 : 917-733-7387
행정실장 김신정 전도사 : 646-708-1101
사무실 : 718-463-7163 / www.rptseast.org
143-17 Fl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특 전 ◆

1)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2)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심사 후 Scholarship을 지급함)
3)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토기장이 북카페(도서관)'가 있음
4) 목회학석사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5) 졸업생은 원할 경우에 2년 인턴 과정 후, 심사를 거쳐 개척교회 지원함
6)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발행인 칼럼

오뚝이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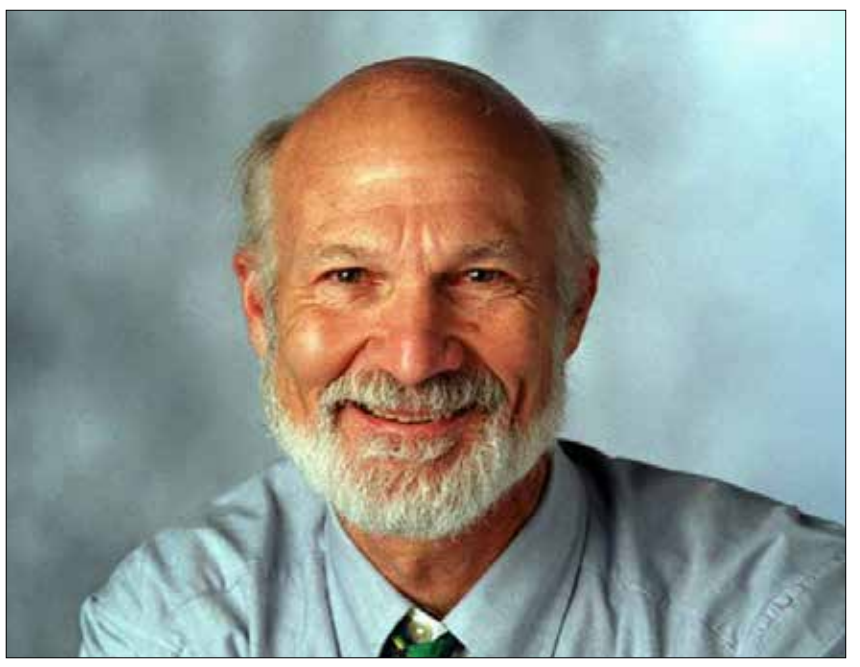
어렸을 적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오뚝이"라는 노래가 있다. "책상 위에 오뚝이 우습구나야/ 검은 눈은 성내어 뒤룩거리고/ 배는 불룩 내민 꼴 우습구나야---아래로 떨어져서도/ 안 아픈 체하는 꼴 우습구나야" 무심코 오뚝이를 우습게 여기면서 불렀던 노래였다. 과연 오뚝이는 그런 우스꽝스런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오뚝이를 잠시 인격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크게 존경받아야 할 존재이다. 그는 칠전팔기(七顚八起)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백 번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자기를 넘어뜨린 자가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는 상처를 받았다며 주저앉아 울지 않는다.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오히려 웃으며 오뚝이는 곧 다시 일어난다. 그 웃음은 그를 향해 "우습구나야"라고 놀리던 자들을 향해 웃는 것이다.

"Resilience(복원력, 회복력)"이라는 단어가 있다. 여러 이유로 휘어지고 구부러지긴 하지만 마침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말한다.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구부러진 고통의 시간에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배워서 돌아오는 것이다. 전적으로 새로워져서 돌아오는 것을 "resilience"이라고 한다. 어떤 질병이나 고통에서 일어서는 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회복하는 것을 본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 "Agape Wave"라는 작은 부서가 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진 친구들이 담당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매 주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특별활동도 한다. 가끔 야외활동도 하는데 그 주중에 눈도 내렸고 당일은 몹시 추웠던 지난 토요일, 맨해튼의 박물관을 다녀왔다. 다음 날 주일에 담당 목사님께 잘 다녀오셨냐고 물었다. Van으로 전철역까지 갔고, 맨해튼에 내려서는 박물관까지 그리고 박물관 안에서도 많이 걸었다고 한다. 훈련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기도 하였는데 친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라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했다. 동행했던 교사들의 적절한 역할 가운데 모두 교회로 가정으로 다시 잘 돌아왔다고 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렇다. "Resilience"은 단순한 원상태로의 복원이 아니다. 넘어지기 전에는 알지도 누리지 못했던 풍성함을 가지고의 복원이며 회복이다.

인생길에 넘어짐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하거나 어떤 넘어짐에서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사람이 자그마한 장난감 오뚝이만도 못할 수는 없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의 넘어짐에는 이런 손길이 함께 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 37:23-24) 복싱에는 "다운"도 있고 "KO"도 있다. 다운은 일어나면 다시 기회가 있으나 KO는 완전 끝이다. 자기 선수가 다운당할 때 차마 볼 수 없다는 듯이 항복과 포기의 흰 수건을 던지는 코치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넘어짐에 주님은 애처롭다며 흰 수건을 던지지 않으신다. 다가와 손 내미신다.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 그리고 이기게 하신다. 우리에게 가끔 다운은 있어도 결코 KO는 없다. 주님 때문에 다운에서 일어나 끝내 이긴다.

지금, 넘어지셨는가. 오뚝이같이 일어나야 한다. Resilience, 풍성한 복원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KO패가 아니라 역전승으로 끝나는 존재임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해야 한다.

출산을 장려하는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방식



정해진 범주를 흩트리고 청취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신학자로 스탠리 하우어워스를 따라올 사람은 없다. 그는 도덕 윤리 분야의 최고 목소리였고, (내가 지지하는) 개혁 신학에 대한 비판자였으며, 내가 아는 한 강의 시간에 입에 욕을 담은 유일한 신학자이다.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가하고도 남을 그는 신학적 좌파에 관해서는 그들이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며 무시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타임은 2001년에 그를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명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는 "최고"라는 단어는 자신이 아는 한 신학 용어가 아니라며 무미건조하게 반응했을 뿐이다.

우파가 가진 우상과 좌파가 가진 우상,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가장 위험한 우상을 불러내는 데에 적극적 의지를 가진 하우어워스로부터 우리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교회가 얼마나 조용해지는지 눈치챈 적이 있는가? 하우어워스는 이런 모든 어색함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물질주의, 통제에 대한 욕구,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실패가 우리의 출산 신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로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불편해진다. '출산'에 대한 논의는 그만큼 어색하다. 그렇다면 하우어워스는 아이들에 대한 나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가 출산을 원하는 사람(pro-children)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성경 전체에 걸쳐 있다

토론(debating)에서 데이트(dating)로

나는 독신 대학원생으로서 하우어워스와 함께 공부했는데, "낭만적으로 이상화하는 가족"에 관한 그의 비판에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바로 범인이었다. 좌절한 범인. 미혼이었던 나는 전반적으로 진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듀크 대학에서 나는 데이트보다 토론을 더 좋아하는 남자 동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다가 철학과 학생 한 명이 내 마음을 끌었고, 나는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듀크뿐 아니라 같은 교회를 다녔던 그 "친구"와의 몇 주간에 걸친 논쟁에서 (그게 과연 단지 우정이었을까?) 중심이 된 건 결혼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견해였다. 단순한 학문적 활동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논쟁이었다. 우리 각자가 독신 생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혼 부부만큼, 혹은 그 이상을 이바지할 수 있는가? (내 친구의 입장이다.) 아니면 뭔가 더 좋은 것은 오로지 결혼을 통해서만 성취될까? (내 입장이다.) 우리는 교제와 로맨스 같은 개인적인 가치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바른 위치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스티븐은 나이 많은 독신이고 로맨스보다 생산성에 더 관심이 있었지만, 나는 부분적으로 하우어워스의 강력하고 비감정적인 결혼 비전 덕분에 오늘까지도 그 큰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다섯 자녀를 둔 후에도 우리 부부는 여전히 가족의 목적과 관련해서 하우어워스의 도전적이고 파괴적이며 필요한 관점을 인용하고 있다.

믿음과 소망의 행동

노틀담 대학에서 진행했던 결혼 강의에서 하우어워스가 학생들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라.

나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들은 건, "아이들은 재미있다", "아이들은 외로움을 막아주는 울타리이다" 같은 대답이었다. 그래서 나는 개를 키우라고 추천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진짜 좋게 들리는 멋진 대답을 하나 내놓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면 비로소 사람들은 완벽한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충분한 재정과 집 등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이들을 이 세상에 맞이하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어떤 아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 끔찍한 비극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녀를 갖는 것은 실로 엄청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특별한 행위이다.

〈10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2 L.A. CA 90006

교회인쇄물 · 헌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신년 교회배너 | 헌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 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 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주문: (347)952-5442, (347)858-6063
뉴 저 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 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1. 구약주해: 레위기 1:1~9
2. 신약주해: 갈라디아서 2:11~21
3. 논문제목: 팬데믹 이후 주일학교(차세대) 활성화 방안과 전략
4. 설교본문(하나 택일): 구약 - 사사기 2:1~10 4 제목/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신약 - 골로새서 1:24 제목/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김요섭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4년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4년 3월30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8회 총회기간(5월 21일~24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4년 5월 20일(월)~21일(화)
장소: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Burlingame, CA 94010

제출서류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4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김요섭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0,21)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김요섭 목사 (Rev. Joseph Y. Kim)
주소 :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전화 : 213-215-8523 / 이메일 laredeemer@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고시부 서기 : 김요섭 목사(Rev. Joseph Y. Kim) laredeemer@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김성국 목사
서 기 :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 김요섭 목사

2024년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국

〈1면에서 계속〉

오픈도어 연구원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반대 세력이 커지는 것의 상관관계가 이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점수가 높아진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이러한 상관관계를 예언한 성경 구절이 여전히 사실이라는 것이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콜롬비아는 상위 50위권 국가 중 유일하게 2점(2.5점) 이상 하락한 국가로, 22위에서 34위로 떨어졌다. 베트남(25위에서 35위로 하락), 인도네시아(33위에서 42위로 하락), 터키(41위에서 50위로 하락)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말리에서는 시민들이 기독교 소수파를 명확히 인정하고 민간 통치로 돌아갈 수 있는 새 헌법을 승인하면서 희망의 조짐이 보였다. 그리고 인도 카르나타카 주에서는 야당이 개종 금지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국민당(BJP)을 몰아냈다. 그러나 기독교인 가정에 대한 공격이 180건으로 2배, 기독교인 사망자가 160명으로 9배,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 대한 공격이 67건에서 2,228건으로 증가하면서 인도는 전체적으로 11위를 유지했다. 중국(19위)의 교회 폐쇄 건수 1만 건을 합치면 2023년 전체 교회 폐쇄 사건의 거의 83%를 이 두 나라가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니카라과의 전체 점수가 8.3% 상승한 것은 모든 월드와치리스트(WWL)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인 국가였다. 오픈도어는 니카라과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맞춤형' 입법 제한, 기독교 재산 압류, 종교 지도자 체포 및 추방 등의 현상은 새로운 동향이라고 파악되기보다는 니카라과가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27위에서 22위로 상승)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순위는 없지만 오픈도어가 모니터링하고 있음)가 특히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권위주의적 충동이 타지역으로 퍼지고 있다. 중국의 감시 기술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는 나이지리아이며, 모스크바의 와그너 그룹은 부르키나파소,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28위), 모잠비크(39위)에 보안 지원을 진출했다. 올해 상위 50위권 국가 중 순위에 새로 진입한 국가는 없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박해받고 있는가?

오픈도어선교회는 개인, 가족, 교회에 대한 사회적, 정부 압력을 포함한 여섯 가지 범주에 걸쳐 박해를 추적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폭력을 하나의 범주로 분리하면 상위 10개 박해국의 순위가 급격히 바뀌는데, 나이지리아만 순위에 그대로 남는다. 오픈도어가 보고 기간 신앙 때문에 살해당한 기독교인 수를 4,998명으로 집계하면서 순교자 수가 전년 대비 600명 이상 감소했다. 이는 11% 감소한 수치이지만, 2016년 7,106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나이지리아가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261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해 2위를 차지했으며, 인도는 160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해 3위를 기록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심하게 폭력이 가해지는 국가

오픈도어는 연간 순교자 수를 10만 명으로 집계하는 다른 기독교 구호 단체보다 보수적인 추산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숫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가정하여 10, 100, 1,000 또는 10,000의 반올림된 숫자로 추정치를 제시한다. 또한 일부 국가는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 표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프가니스탄, 부탄, 말레이시아, 몰디브, 북한, 오만, 소말리아, 예멘은 '무기명'으로 표기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무기명으로 표기한 국가가 4위를 차지했으며, 우간다(55명), 미얀마(34명), 부르키나파소(31명), 카메룬(24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23명), 콜롬비아(16명)가 그 뒤를 이었다.

두 번째 범주는 교회와 병원, 학교, 묘지 등 기타 기독교 건물에 대한 공격으로, 파괴, 폐쇄, 몰수 등의 피해를 추적한다. 2020년 보고서의 최고치인 9,488건을 넘어선 7배 증가한 14,766건의 사건은 중국과 인도가 주도했으며, 나이지리아(750건), 니카라과(347건), 에티오피아(284건), 르완다(12건)가 뒤를 이었고 수단,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앙골라가 상징적으로 총 100건의 사건을 기록했다. 재판 없이 구금되어 체포, 선고, 투옥된 기독교인의 수는 4,125명으로 2022년 보고서의 6,175명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이 범주를 추적한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오픈도어는 이를 두 가지 하위 범주로 나누었는데, 구금된 신자 수는 3,329명으로 6% 증가했다. 인도가 2,085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에리트레아가 322건, 이란이 1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무기명 국가, 파키스탄과 중국이 각각 100건을 기록했으며, 라오스 65건, 쿠바 45건, 니카라과 38건, 리비아 31건이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수감된 신자 수는 796명으로 집계되어 이전 기간에 보고된 1,388명보다 43% 감소했다. 인도가 247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무기명 국가,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중국이 각각 100명씩을 기록했다. 납치된 기독교인의 수는 5,259명에서 3,906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해당 범주를 추적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나이지리아가 전체의 83%인 3,300건을 차지했으며 파키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가 상징적인 총 100건을 기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실향민으로,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집을 떠나거나 숨어 지내야 했던 기독교인이 278,716명으로 작년의 124,310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4,997명에서 16,404명의 기독교인이 추가로 고국을 떠나야 했다. 미얀마와 나이지리아가 상징적인 10만 명의 국내 난민으로 선두를 달렸고, 인도가 6만 2,11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미얀마 역시 1만 명의 난민을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했고, 나이지리아, 이란, 이름모를 국가, 방글라데시, 콩고가 각각 1,000명의 난민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오픈도어는 특히 정확한 집계가 어려웠던 몇 가지 항목이 있었으며, 그중 구타와 살해 위협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사례가 42,84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작년 집계는 29,411건이었다.) 추적 대상 75개국 중 48개국에 상징적인 숫자가 부여되었다.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인도가 각각 10,000건을 기록했으며, 무기명 국가인 에리트레아, 말리, 미얀마, 방글라데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가 각각 1,000건으로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2023년에 총 21,431개의 기독교 가정과 건물이 공격받았으며, 5,740개의 상점과 기업이 공격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인도가 1,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상징적인 수치인 1,000건을 기록하는 등 42개국 중 17개국에서만 구체적인 숫자를 기록했다. 기독교 가정 중에서는 나이지리아의 상징적 수치인 10,000건에 이어 인도가 5,878건, 파키스탄, 미얀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가 1,000건이라는 상징적 수치를 기록했다. 오픈도어 연구원들이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여성 관련 항목도 있었다. 강간 및 성희롱 사건은 2,126건에서 2,622건으로 증가했으며, 나이지리아가 1,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리아가 50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기독교인과의 강제 결혼은 717건에서 609건으로 감소했으며, 파키스탄, 이란, 무기명 국가가 각각 100건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국가에서 기독교인이 박해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된 동기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 차이를 잘 이해한다면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기도하고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9면으로 계속〉

기독교 박해에 관한 최신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에서 니카라과에 이르기까지의 이슬람 무장 세력과 독재 정권의 위험 증가를 기록했다.

시 론

전도지 한 장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주일 오후마다 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성도가 있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쏟아지는 어느 주일에 몹시 피곤했던 그 사람은 오늘만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그의 어린 아들이 물었다. "아빠, 오늘은 왜 전도지를 나눠주러 가지 않으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구나." 아빠는 가볍게 대답했다. "아빠, 그럼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나요?" 놀란 아빠가 설명한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런 날은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단다. 게다가 아빠는 지금 너무 피곤해서 꼼짝도 할 수 없구나." "아빠, 그럼 오늘은 제가 대신 나가도 될까요?" 아들의 진지한 모습에 아빠는 너무 늦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전도지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빠의 허락을 받은 아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러 밖에 나갔는데 아빠의 말처럼 거리에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우산을 들어서 인지 전도지를 받아가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다. 그래도 소년은 전도지를 끝까지 나누어주어 결국 몇 장만 남았다. 거리는 사람들이 사라져 한적했기에 소년은 근처의 집들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는 반응이 없으면 문틈에 전도지를 밀어 넣었다. 역시 반응이 없는 집에 마지막 전도지를 밀어 넣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라는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문을 계속 두드렸는데 몹시 침통한 표정의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 "미안해요.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께 이 전도지를 전해드리러 왔어요."

한 주간이 지난 뒤,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혹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싶은 분이 계시냐고 청중들에게 묻자 한 여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간증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후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살을 결심하여 비가 많이 오던 지난주일 늦은 시간에 다량의 수면제를 먹으려고 준비하는 그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무시하려다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전도지 한 장을 손에 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다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전도지 한 장을 다른 사람에게 내민다는 게 별 거 아닐 수 있지만 정말 대단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교회로 인도하는 경천동지할 사건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무엇보다 전도지 한 장을 내미는 성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관계전도가 중요하고 그런 전도여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행위는 성도 자신을 깨어 있게 만든다.

전에 우리교회에 구십이 넘은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자녀들을 따라 나오셨다. 몇 번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양로원에 들어가시고는 그 후론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다. 어느 날 양로원으로 심방을 갔더니 침대 아래에서 검은 철가방을 꺼내달라고 하셨다. 그것을 열어보니 명함 크기의 전도지가 가득 들어있었다. 전도지에는 복음의 핵심이 잘 담겨 있었다. 이 전도지들의 사연을 알려달라고 하니 은퇴 이후에 하루에 두 시간씩 그 명함 전도지를 집집마다 돌리셨다고 한다. 대략 15만장. 이젠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남은 전도지가 5천장이고 철가방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 장로님은 우리 교인들이 이 전도지를 나눠주실 수 있겠느냐고 여쭈셨다.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우리 교인들에게 사연을 말하니 순식간에 다 소비되었다.

연말에 전도상을 주려고 교인방문카드를 점검해 보니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전도하였다. 성경책을 사주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라고 설득한 분도 있고, 전에 우리 교인이었으나 교회를 다니지 않아 모셔온 경우도 있다.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은 이들을 초대한 이들도 있다. 우리는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한다.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누는 열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2).

minkyungyob@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룹교제및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현장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773)8021112 estcross@yahoo.com
6050 W.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초,중,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703)5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젼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라떼" 와 "3요"

제가 언제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줄 아세요? 아무리 쉬어도 피곤할 때, 내 코 고는 소리에놀라 잠에서 깰 때, 생일 케이크에 초를 더 이상 꽂을 수 없을 때, 익숙한 번호도 깜박 잊어버릴 때, 유행어나 신조어 등의 요즘 말을 못 알아들을 때, 특히 대화 중에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자주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 제가 나이 드는 것을 느낍니다.

"나 때는 말이야~"를 풍자한 표현인 "라떼는 말이야~"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꼰대 상사가 자주 하는 꼰대의 언어라고 합니다. 부하 직원의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며 가르치려는 기성세대나 연장자를 비하하는 은어입니다. 얼마 전에는 '꼰대'를 재치있게 풍자한 "꼰대라떼"라는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제발 그만그만 그만해. 오늘도 시작되는 꼰대라떼. 아침에 한 잔, 점심에 세잔, 저녁엔 열 잔이나 마셨는데 뻔뻔하게 반복되는 하루가 지나간다. 왕년에 내가 말하신다면 오늘도 시작이구나. 네까짓 게 뭘 알아 궁금하시면 라떼를 한 잔 드세요. 라떼라떼라떼라떼 라떼는 말이야...."

혹시 이 가사에 공감하세요? 기성세대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젊은 동역자들과의 대화 중에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무조건 순종했어. 끝까지 충성했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역했어.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갈 각오를 했었어"....

담임목사인 제가 "내가 나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너무나 쉽게 범하는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반면에 요즘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자)가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요"라는 신조어입니다.

"3요"는 직장 상사가 업무지시를 내리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고 되묻는 MZ세대의 반응을 일컫습니다. 최근에는 "3요"에 "몰라요"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만일 "3요"가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알고,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그 일의 중요성과 목적을 바로 파악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합당한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지시받는 일이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가능한 힘든 일을 회피하고 싶어서, 어떤 책임도 지고 싶지 않아서, 권리는 주장하면서도 의무는 감당하기 싫어서, "왜 나만 이렇게 하찮은 일을 시키지?"라는 피해의식이 심해서 "3요"를 외친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떨까요?

우선 직장에서 성공은커녕 서바이벌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모습은 일터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착한 행실로 세상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터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성세대 여러분! "계속 '라떼~"를 외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취에 빠지고, 남을 특히 젊은이들을 은근히 깍아 내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떼는 말아야 ~" 대신에 "하나님의 때는 말이야~"를 외칩시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나누는 대신에 지금까지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MZ세대 여러분! '이걸요?', '제가요?', '왜요?' 대신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요."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라떼"와 "3요"를 주의합시다.

푸/른/초/장

홍승민 목사
(브니엘한인장로교회)

분별의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

요한일서 4:1-6

전 세계에 극소수만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큐그레이더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큐그레이더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커피 감별사입니다. 와인 맛을 감별하는 사람을 소믈리에라고 한다면 커피 감별사는 큐그레이더라고 부르는 것이죠. 본래 큐그레이더는 커피 가운데서도 아라비카라고 하는 커피의 생두를 감별하는 사람이지만 대개 모든 커피 맛을 감별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감별해서 커피마다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향과 맛을 잘 구별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커피 가운데는 단 맛 나는 커피, 신 맛 나는 커피, 심지어 짭짤한 맛까지 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 고유의 믹스 커피는 달달한 맛이 나는 것이 참 좋죠. 하지만 커피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감별해 내는 것은 정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큐그레이더는 무려 22개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3년마다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하니 참 어려운 직업이긴 합니다. 커피뿐 아니라 무엇인가를 정밀하게 감별하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감별하는 일이 나옵니다. 바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요한의 당부가 그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분별은 소믈리에의 와인 감별이나, 큐그레이더의 커피 향이나 맛의 감별보다 훨씬 중요한 감별 혹은 분별일 것입니다. 1절에서 영을 분별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원어는 "무엇인가를 비평적으로 조사하거나 시험하고 살피면서 그 진위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살펴보고 조사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들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왔고 교회 내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성장해 나가던 1세기 당시에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흔들려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 영지주의의 싹이 되는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불리던 이들은 요한의 수신자들이 속한 공동체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영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은 독자들에게 영을 분별하는 시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그중에서도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 즉 예수님의 신성뿐 아니라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을 감별해 내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의 이단들은 많은 경우에 기독론 즉 예수님에 관한 교리들과 구원론에 큰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요한의 수신자들이 속한 공동체는 이러한 이단을 확실하게 반대하였고 예수님의 인간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그 공동체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분리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반짝인다고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라는 미국의 격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으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은 건전한 신학과 교리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학 혹은 교리라고 하면 왠지 무겁고 딱딱하고 드라이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혹은 "꿩 잡는게 매다"라는 식으로 성도들이 은혜받는다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받았다고 할 때는 이렇게 바른 신학적 기반이나 건전한 교리의 토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큰 구원의 일을 감사하고 음미하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체험이나 감정이 만족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교단도 상관없고, 신학도 상관없고 부흥이나 성장이 된다면 다 사용한 결과가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성도들의 삶이 교회 안과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른 신학의 기초가 없을 때 신앙은 주관적으로 되고 맙니다. 게다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주의가 휩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바른 것", "진리" 혹은 "옳음"이라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때문에 더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초대교회처럼 뚜렷한 이단들이 있다면 대적하기가 좀 더 확실하고 수월할 수 있을 텐데 교묘한 혼합주의는 더욱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더욱 든든하게 건전하고 건강한 신학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든 교리와 신학의 기초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그 분이야말로 모든 성경의 중심이며 해석의 중심입니다.(눅 24:27, 44)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라는 기초 위에 그 터를 두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분을 중심으로 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건전하고 건강한 신학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요한은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심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 때문에 즉 그 분의 성육신을 인정하고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분리주의자들이나 거짓 이단들처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도하려고 교회의 대각성 전도집회에 데려간 한 후배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울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린도전서 12:3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4-15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공유하고 모인 공동체는 기적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무슨 놀라운 은사나 이적을 경험한 자들이라기보다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함을 받으신 자들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공동체는 기적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공동체에 전하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건전한 신학의 필요성입니다. 그런 신학으로 잘 무장되고 준비된 공동체 즉 분별의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학이란 결코 드라이하거나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탐구입니다.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매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고 든든한 신학의 토대 위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가 기적의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택함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기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고백 자체가 기적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거짓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분별과 기적의 공동체임을 깊이 감사하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enielkpcpastor@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미국안의 "신앙적 변화" 와 그 의미들을 알아본다 -2 -

자신의 출생 배경을 나누며 "태아 생명보호" 운동을 격려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원장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알라바마주, 공화당)은 지난 금요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례행사, '2024 태아 생명 보호 대행진(March for Life)' 집회에서 연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가치에 대한 개념은 건국 이래로 미국 정치 사상에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은 또한 눈 내리는 날씨를 무릅쓰고 모인 많은 군중들에게 자신의 출생도 계획에 없던 임신(Unplanned Pregnancy)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강력한 생명 존엄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워주었습니다.

존슨 하원의원장은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G.K. 체스터턴이 언급했듯이 미국은 신조(Creed)를 바탕으로 해서 건국된 세계 유일의 국가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독립선언서에 '신학적 명료성'으로 명시되어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신조란 무엇인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출생 증명서이기도 한 독립선언문에서 무엇이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것일까? 우리는 그 문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우리는 이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믿는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평등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창조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국 건국 선조들이 말한 것이다."

존슨 하원 위원장은, 미국 독립선언서에 명시된 세계관은 " '모든 사람은 무한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는 피부색이나 거주지 우편번호, 스포츠 실력, 고등학교, 대학교 출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는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 면서 " 모든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고유한 생명 가치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기준들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한 국가 신조 덕분에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가장 성공적이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자비로운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존슨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존슨은 자신의 출생비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역사적인 Roe v. Wade 판결을 내리기 정확히 1년 전이였던, 1972년 1월에, 그의 부모님의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자신이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님은 10대였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어린 십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존슨은 또한 최근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통과된 두 가지 좋은 법안인 '임신한 학생 권리법'과 '임신 및 육아 여성과 가족 지원법에 대해 알렸습니다.

첫 번째 법안은, 대학이 여학생들이 임신 시 그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법안은 친생명(Pro-life) 임신 센터가 빈곤 가정 임시 지원(TANF) 프로그램에서 연방 복지기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끈임없는 시도들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내놓은 친생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두 법안 모두 '여성 낙태 선택권리 반대'의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폐기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존슨위원장은 연설에서 이 법안이 여성과 태아를 돕기 위한 의회의 마땅한 모든 인간 생명의 권리를 위한 이들의 노력의 예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또 오늘 March for Life 친생명 행진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 아이들과 모든 태아들을 무시하기에는 그들이 너무 심오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낙관할 만한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 프레드릭 더글러스(Fredrick Douglas), 수잔 B. 앤서니와 같은 인물들이 미국의 국가 신조에 명시된 이념을 고수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동료 미국인들에게 우리의 건국 이념과 함께 링컨대통령이 유명한 첫 취임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본성의 더 나은 면(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을 상기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렇게 자신의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나아갑시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여성과 모든 아이의 편에 설 수 있으며, 진정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문화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존슨 하원의장의 연설 결론 이야말로 현 미국의 태아 살해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모든 미국인들이 귀담아 듣고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지원하고 장려해야 하는 것은 '낙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존엄성'과 함께, 다음 세대들의 건전하고도 도덕적인 가치관 정립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은 물론 성경에 가장 상세하고도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결코 쉽지않은 하원의원장 위치에서 정치적 이득이나 타협보다 자신의 신앙관을 따라, 그리고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마이클 존슨의원을 지지하며, 그를 위해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씰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가든그로브에서 목회하는 50대 목사입니다.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한 두번 어려움을 당해 내 자신의 마음속에는 실패의 감정과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새 교우들을 보내주셔서 새 마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거의 실패로 인한 저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 가든그로브에서 C 목사가

실패의식과 낮은 자존감 극복

A: 좋은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실패를 하지 않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의 케이스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치욕적인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 스스로를 자책하며 트라우마가 생겼을 줄 압니다. 이 일때문에 결국 자신감과 사명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 나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일군이 되겠나?하며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예전 직업으로 물고기 잡기 위해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활 후에 갈릴리 해변가로 찾아오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오른 편에 던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우면 너는 얼마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음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리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며 숯불의 식탁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음식으로 먹이셨습니다. 과거의 일로 책망을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며 사명을 다시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감격했고 사랑에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어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상담자인 저 역시 어릴 때 키가 작고 좋은 학교 가려다 몇 번 시험에 떨어지면서 실패와 패배의식으로 인해 제 마음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낮은 자존감(Low self-esteem)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형은 시험만 치면 합격하여 저와는 비교가 되었습니다. 이때 저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 준 두 분이 계십니다. 첫째, 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할 때 기뻐하시면서 "너는 휼륭한 목사가 될거야"하며 그 후로 수없이 따뜻한 말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저는 용기를 얻어 열심히 신학공부를 했고 저의 낮은 자존감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만 26살에 목사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미주에서 목회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2가지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You can)라는 말과 너는 될 것이다(You shall be) 위대한 하나님의 일군이 될 것이다. 너는 휼륭한 의사, 변호사, 사업가, 전문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약속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저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롬8: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나"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밤 10시에는 총신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5년을 총신에서 신학 공부하게 되면서 성령님은 저의 성격적 연약, 영적 연약, 육체적 연약, 의지적 연약을 능히 극복하게 저를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실패없이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수업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패배의식을 떨쳐 버리십시오. 목사님의 목회에 올해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1부예배:오전 8:30
주일2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 11:00
새 벽 기도 회: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 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9:15,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 오전 11:00
E M 예배 :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la.com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a-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탐구예배: 오후 6:30

Tel:(310)749-4756
실비치 리저월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오전10시오후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 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Tel.(213)700-9928 , www.elpist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 배: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오후8:00 (본당)
새 벽 예 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화요 3.3.3기도회: 매월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E-성경을 한눈에: 오후 7: 30 (금)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213-393-9136, pyongkangch@ @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아악!!

2024년 새해 첫 주 예배와 성찬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드린 후 서로 따뜻한 포옹과 Happy New Year!! 인사를 나눈다. 간단한 점심 식사 후 남편과 오후2시에 첫 예배를 드리는 근처 한인장로교회로 향했다.

나와 오랜 시간 함께 교육기관을 섬긴 개척교회 목사님 내외를 격려함과 동시에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던 동료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많은 기도와 기대로 시작하는 교회의 예배는 감사의 눈물과 감격의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성전을 가득 채웠다. 성악을 전공한 사모님의 봉헌 찬양 시간은 자신의 신앙고백과 같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애써 눈물을 참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의 눈물을 훔치게 했다. 이어지는 목사님 설교는 첫 예배를 드리는 '예수로교회' 비전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신앙생활에 대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다.

나도 새해 첫 주, 두 번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예배 후 정성껏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새해 인사를 반갑게 나누고 다음을 기약하며 집에 돌아왔다.

사모님을 통해 처음 듣게 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선율이 너무 좋아서 차안에서 계속 찾아 들으며 읊조렸다. 그 후 악보를 구입하고 피아노를 치며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목요일 저녁식사 후 내가 다시 찬양을 시작하자 남편이 반주를 해주겠다고 하여 멋진 남편 피아노반주에 듀엣으로 노래를 이어갔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던 아이들도 우리의 찬양소리에 다시나와 어느새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

화음을 잘 넣는 딸이 내가 앉은 휴대용 연주 의자에 같이 앉아 화음을 넣으며 행복하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철제의자가 파삭!! 주저앉으며 끝에 걸터앉은 딸은 다행히 순간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미처 다 피하지 못한 나는 의자 아래 철제 빔에 오른발이 눌리고 찍히며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나고 말았다.

한참 찬양의 절정 부분인 후렴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 아악~~!!' 이렇게 되고 만 것이다.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에 비명은 나오는데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리고 통증이 조금 가라앉은 후에야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병원에 가니 다행히 부러지지는 않았으나 큰 타박으로 오른발 전체가 뒤꿈치까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발등도 부었다. 냉찜질, 강력파스와 압박붕대로 발전체를 처치하자 통증과 불편함에 걷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당장 일상과 직장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생겨 버렸다. '아니 정초부터 찬양을 부르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너무너무 속상하고 몸도 마음도 아팠다. 그렇게 심난한 마음으로 방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오더니 그 의자가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주저앉은 적이 있어 불안했는데 그렇게 되었다며, 자신이 미리 정리하지 않은 것을 미안해했다. 괜찮다고 서로를 위로하며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외부연주를 할 때 항상 그 연주의자를 들고 다녔는데 무대에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이 감사했다. 또한 딸이 함께 앉아있었는데 대학 오디션과 NPR 방송국 연주를 앞두고 다치지 않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내가 더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했다. 괜히 찬양을 부르다 왜 이런 일이라는 후회보다 또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마음이 회복되고 충만해졌다. 그렇게 나는 며칠간 침대에서 강제휴가를 통해 더 많은 찬양을 맘껏 듣고 찬송하는 새해 선물을 누렸다.

songjoungim@gmail.com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 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려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 손경민 작사,작곡 -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아버지 쏙 빼닮은 마틴 루터 킹 목사 아들 62세 별세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둘째 아들 덱스터 스콧 킹이 2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62세.

덱스터 킹이 회장을 맡은 애틀랜타시의 킹 센터는 22일 성명을 통해 그가 전립선암으로 투병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의 부인 레아 웨버는 성명에서 '남편이 잠자는 동안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전했다. 킹 센터는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아내 코레타 스콧 킹이 남편의 뜻을 이어 가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덱스터 킹은 오랫동안 이곳의 회장으로 일하며, 재단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을 찾는 등 노력했다. 고인의 이름은 킹 목사가 처음 목회 활동을 시작한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덱스터 애비뉴 침례 교회에서 따 왔다. 몽고메리는 유명한 '로자 파크스'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인종 분리법이 남아 있던 1955년, 시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체포된 사건이다. 흑인들이 '버스 안 타기 운동'을 시작했고, 같은 주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킹 목사가 이 저항운동을 이끌었다. 결국 이듬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버스 내 인종 분리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덱스터 킹은 1968년 4월 4일 아버지 킹 목사가 살해되던 당시 일곱 살이었다. 당시 킹 목사는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청소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암살당했다. 킹 센터의 알 샤프턴 목사는 "덱스터가 그 고통을 활동으로 극복했다"며 "자신의 삶을 바쳐 부모님의 소망이던 모든 인종이 평등한 세상을 위해 싸웠다"고 밝혔다. 샤프턴 목사는 "덱스터 킹이 너무 빨리 우리 곁을 떠났다"며 애도하기도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덱스터 킹은 변호사로 일하며, 아버지 킹 목사의 유산과 킹 가문의 지적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킹 센터의 회장 역할 외에도 킹 가문 재산의 책임자로 일했다. 덱스터 킹의 다른 형제들도 가족 재산의 지분과 운영권을 갖고 있었으나, 부모님의 유산에 대한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았다. 2014년 아버지 킹 목사가 받은 노벨상의 상금을 두고 덱스터와 그의 형이 법정 소송에 이르는 등, 형제간의 갈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는 2004년 회고록 '킹으로 자라나기(Growing Up King)'을 출간하기도 했다. 덱스터 킹은 책에서 "나는 일곱 살 때부터, 내가 격식 있고 정제되어야 한다고 느꼈다"며 "격식, 진지함, 확신에 찬 태도 등은 유지하기 어렵다. 완벽하게 평정을 지키도록 타고난 사람이라도 삶에서 비롯되는 온갖 극적인 일들을 겪고 그런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년기를 지나 어른이 된 그는 아버지 킹 목사의 외양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로자 파크스를 조명한 TV 프로그램에 아버지인 킹 목사 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덱스터 킹은 그의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지 않았다. 형 마틴 루터 킹 3세가 남부 기독교 리더십 회의의 회장을 역임하고, 동생 버니스는 아버지를 이어 인권운동가이자 목사가 됐다. 그러나 덱스터 킹은 1997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나는 스스로를 매체에서 그리는 것처럼 지도자로 생각한 적이 없다"며 "그것이 나에게 있어 최선의 운명은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보여도 "매일이 기쁨" 100세 할머니 방송에 위로받는 사람들

미국 100세 할머니가 시력 장애를 딛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토크쇼를 수년째 진행해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의 지역 매체인 WYFF는 프랭키 칠더스가 최근 100세 생일을 맞아 라이브로 성경 말씀을 소개하는 토크쇼인 '프랭키의 힘을 주는 이야기(Frankie's Encouraging Words)'를 진행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칠더스는 2018년 4월부터 딸 프랜 모니와 함께 페이스북에서 매주 수요일 성경 말씀을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해왔다.

칠더스의 100세 기념 방송은 2번에 나눠서 진행됐다. 지난 4일 방송에서 딸 모니는 "올해 내가 붙들고 싶은 것은 '기쁨(delight)'"이라며 시편 37장 4절 말씀을 낭독했다. 엄마 칠더스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는 시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도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인 11일에서는 딸이 시편 37장 5절을 낭독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씀을 읊자, 엄마는 해당 구절이 아름답다고 칭송했다. 이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길을 맡기면, 그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주신다"고 덧붙였다. 할머니가 전하는 성경 말씀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있다. 딸인 모니는 "우리는 '그냥 재미로 방송을 페이스북에 올려 보자'고 했다"며 "그렇게 시작된 방송을 이제는 매주 500~700여 명의 시청자가 본다"고 또 다른 지역 매체인 폭스캐롤라이나가 전했다.

칠더스는 방송에서 황반변성으로 시력장애가 생겨 성경을 직접 읽지 못하게 되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몇 번의 수술을 거쳤지만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나는 지금도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있고, 주님은 여전히 내게 말씀하신다"고 고백했다. WYFF에 따르면 칠더스는 매일 아침 땅에 발을 디딜 때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날'이라고 고백한다. 그는 "(그 사실 때문에) 매일 기쁘고 즐겁다"고 했다. 칠더스는 25년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개프니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교편을 잡은 기간에서 10년 더한 동안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말씀의 중요성을 절감해 집 안 거울에도 성경을 써 붙이는 등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접하게 했다.

탈레반, '男후견인 없는 여성 근로자 구금·해고' …유엔 보고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가 마흐람(Mahram·남성 후견인) 없는 여성의 일상생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고 유엔 산하 기관이 밝혔다.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백명의 여성을 직장에서 쫓아냈다.

22일 미국 ABC뉴스와 VOA 등에 따르면 유엔 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레반이 여성들의 직업 선택, 여행,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UNAMA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프간 관료와 여성 등 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레반이 미혼 여성이나 마흐람과 동행하지 않은 여성을 단속하거나 체포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히잡 등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마흐람 또는 남성 친척을 동반하지 않고 공공장소, 사무실, 교육기관을 방문한 여성 최소 6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일종의 도덕경찰인 '권선징악부'는 지난해 10월 400명의 여성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동부 낭가르하르주의 한 소나무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반면 남성은 계속 일하는 것이 허용됐다. 탈레반이 운영하는 발크 북부 발전소도 지난해 11월 경제적 이유로 200명의 여성을 해고했지만, 남성 직원은 해고되지 않았다. 권선징악부 관리들은 "미혼 여성이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의료시설의 미혼 여성 직원에게 결혼하거나 직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여성 의료 종사자 3명은 마흐람 없이 일한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이들은 "다시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 뒤 풀려났다.

中 "한·중 우호 증진에 긍정적 역할" …푸바오, 쓰촨성 기지서 생활

오는 4월 중국으로 돌아가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에 대해 중국 당국이 한·중 우호 증진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푸바오의 중국 귀환에 대한 질문을 받고 "푸바오가 태어난 이후 한국 민중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중국과 한국 인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푸바오가 4살이 되면 중·한 양측 협의와 관례에 따라 귀국시킬 것"이라며 "푸바오가 어디에 있든지 섬세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에버랜드는 이날 푸바오가 4월 초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공지했다. 푸바오는 쓰촨성 자이언트 판다보전연구센터에서 생활하게 된다. 에버랜드는 야생동물에 대한 국제 규정에 따라 이동하기 전 한 달간 푸바오를 판다월드 내 별도 공간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태어났다. '용인 푸씨' '푸공주' '푸뚠뚠' 등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담임목사 청빙 광고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샬럿 벧엘 교회에서 함께할 담임 목사를 찾습니다

저희 샬럿 벧엘 교회는 ARP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교단 제일 노회 (First Presbytery) 소속이며 노스 캐롤라이나 샬럿에 위치 하고 있고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28 년동안 우리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은퇴를 하시게 되었기에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차기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자
- 한국어 와 영어 모두 능통한 자
-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 로써 이민법상 신분에 문제가 없는자
- ARP 교단에서 인정 한 학교의 M Div. degree 이상 소유자
- ARP 교단 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인준 기준에 결격 사유 없는자
- 이민교회 목회 사역 3년 경력 이상 (전도사 포함 5년 이상)
-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 공부 한자
- 연령: 43세 - 55세 (만 나이)

제출 서류:

- 이력서 (사진과 가족사항 포함) - 3 page 이하
- 자기소개서 (사역 경험과 목회 비전 포함) - 10 page 이하
- 목사 안수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 최근설교영상(2년 이내) - YouTube Link 또는 영상 파일
- 모든 서류 는 .pdf 형식으로 제출 바랍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2024년 3월 31일

관심있는 분은 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 들 이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세요.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의껏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 위원장 이민혁 장로 email: bethelkc7121@outlook.com Cell: 704-724-2465

샬럿벧엘교회 청빙위원회
7121 Delta Lake Dr, Charlotte, NC 28215 | (704) 566-7173

개혁주의 입장에서 현대신학 비판 (1)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현대신학 (Contemporary Theology) 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현대신학을 1919년 칼 바르트 (Karl Barth)의 〈로마서 강해〉가 출판된 것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신학 사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칼 바르트 이전의 근대신학 (Modern Theology)과 현대신학 (Contemporary Theology)은 외형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두 신학의 기초는 모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하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자율성을 근거로 한 계몽주의 (Enlightenment) 사상과 계몽주의 왕자로 불리우는 철학자 칸트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Cornelius Van Til, The Reformed Pastor and Modern Thought, pp. 106-131 참고).

계몽주의 (Enlightenment, 독일어: Aufklärung)의 한자, 계몽(啓蒙)이란 말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칸트는 "인간이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의 지도 없이 (물론 하나님의 계시의 도움없이) 이성적으로 사는 것, 또는 미완성 상태에서 완성태로 나아가는 것"을 계몽이라 했다.

칸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Was ist Aufklärung?)의 에세이를 통해 계몽의 정의를 말했다. 칸트의 이 말이 지금까지 계몽주의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이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모토는 "당신 자신의 이성적 지성을 과감하게 사용하라" (Dare to use your own understanding), "외부에서 오는 것들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자유를 추구하라" (Freedom to think without sanction, without external to man himself), "도그마의 잠에서 깨어나라 (awakening from dogmatic slumber)이다. 계몽주의 사상에는 인간의 자율주의(autonomy)를 포함한다.

현대신학의 기초가 되는 계몽주의 사상은 권위와 진리의 잣대가 인간 외적인 권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벗어나 인간 스스로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권위를 세우며, 현대신학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의 자율성에 근거하고 있다. 자율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진리를 평가하게 된다.

칸트는 기독교의 자율적인 계시 개념 (the Christian concept of autonomous),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개념을 왜곡시켜 인간의 자율적인 이성으로 (man's autonomous reason) 바꾸었다.

다른 말로하면 보편적인 인간의 이성 (universal human reason/ Bewußtsein überhaupt 이 진리를 분별하는 최고의 판단자가 되었다 (이 주제는 Immanuel Kant, Religion within the Limits of Reason Alone 에서 잘 설명한다). 그러므로 "무엇이 진리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아니다. 사실상 진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인간 이성의 합리성에 근거한다. 이러한 사상이 곧 근대와 현대신학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칸트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현상계"(Phenomena)로 칭했고, 동시에 현상계를 벗어난 본질적인 세계를 "물자체 (noumenal)의 세계"로 분류했다.

현상계를 벗어난 물자체(noumena)의 세계는 1) "물 자체" (Thing in Itself; Ding an sich) 이며, 2) "인간의 영혼," 그리고 3) "신"의 영역이다. 칸트의 "누미나"의 세계는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와 흡사하다.

그러므로 칸트에 의하면 하나님을 연구하고 인간의 영혼을 연구하는 영역에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기초로한 합리성을 가지고는 신학연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칸트의 이 개념은 신정통신학에 적용되어져서 "연대기적 역사 (Historie)"와 "해석된 역사 (Geschichte)"로 구분한다. 불트만과 같은 실존주의 신학자는 "역사적인 예수"와 "케리그마적 예수"로 나누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설명할 수 있는 예수와 동시에 현상계 뒤에 존재하는 의미로서의 예수로 나누게 된다. 또한 신정통주의에 의하면 계시를 설명하면서 물자체 (noumenon) 계시는 역사적인 현상세계에 들어 올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면서 성경의 무오성과 영감설을 부인하게된다. 성경에는 오류가 있는 그 당시 신앙인들이 증언하는 고대 문서로 취급한다. 성경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정표이며,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역사적 사건과 신앙사건을 분리시켰으며, 역사적인 그리스도와 신앙의 그리스도로 분리시켰다. 근대신학과 현대신학의 사상적 기초는 칸트 철학이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현대신학을 비판하는 이 글은 주로 반틸 (Van Til) 교수의 "The New Modernism," "The Reformed Pastor and Modern Thought," "Christianity and Barthianism," 간하배 (Harvie M. Conn) 교수의 "Contemporary world theology, a layman's guidebook," 존 프레임 (John Frame) 교수의 "Cornelius Van Til, An Analysis of His Thought," 박윤선 박사의 "개혁주의 교의학"의 제 2 부 "현대신학 비판," 로버트 레이몬드 (Robert L. Reymond) 교수의 "New Systematic Theology," "Jesus Divine Messiah" 등을 참고하였다.

I. 칼 바르트 (Karl Barth)와 신정통주의 (Neo-orthodoxy)

신정통주의 신학을 초창기에는 위기신학 혹은 변증법 신학으로도 불리워졌다. 신정통주의는 19세기 자유 신학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신정통주의는 1919년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의 출판으로 시작된다. 한 카톨릭 신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의 종지부를 찍은 신교 신학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했으며, 또 다른 신학자는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라고 칭했다 (C. Van Til, The New Modernism).

스코틀랜드의 토렌스 (T. F. Torrance)는 "칼 바르트는 슐라이러마허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칭송했다. 다른 많은 신학자들도 칼 바르트를 높이 평가했다.

바르트의 스승인 자유주의 신학자 하르낙 (A. Harnack)은 예수는 유일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사랑과 인본주의적인 이상들이 살아있는 구현 (simply the living embodiment of love and humanistic ideals)" 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인 자유주의 신학자 헤르만 (W. Herrmann)은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반책과 같이 오류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진리의 잣대는 체험과 느낌이라고 했다. 바르트를 포함한 이러한 사람들의 신학은 깊은 경건주의의 특성인 실생활의 기독교 경험을 강조하는 이상주의이다.

바르트은 로마서 주석에서 이전 학자들이 추구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정하고 세상에 내재한 하나님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전적 타자 (totaliter aliter/ the Wholly Other)"로서의 하나님만을 강조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보다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했다. 바르트의 "타자"로서의 하나님은 반틸의 [The New Modernism] 에서 잘 분석, 비판되어져 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속성을 '절대타자'로 규정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접촉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느 것과도 동일시할 수 없으며, 성경의 말씀과도 동일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르트는 그의 주석,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원과 접촉하지만 실제로는 접촉하지 않는 접선처럼 인간에게 오신다" (God comes to man, just as the tangent which touches the circle, but does not really touch it) 했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도 역설적으로 숨겨져 있을 것이며, 인간의 이성, 언어, 경험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자신의 방식으로만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That is, God would paradoxically be hidden even when he is revealed and would reveal himself only on his own terms, far beyond the reach of human reason, language, or experience).

19세기의 자유주의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바르트는 이러한 자유주의를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하고 인간으로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Let God be God and not man). 자유주의는 윤리의 기초위에 신학을 세웠다, 그러나 바르트는 신학의 기초위에 윤리를 세우고자 했다 ("Liberalism built theology on the foundation of ethics and Barth wanted to build ethics on the foundation of theology," Harvie M. Conn, Contemporary world theology, p.12).

KHL0206@gmail.com

하나님의 창조세계...

〈1면에서 계속〉

기후 문제는 인간과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가 점점 더 심각하게 겪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셋은 천연자원과 농업에 대한 의존도, 인구 밀도가 높은 해안 지역, 취약한 제도, 만연한 빈곤으로[4] 인해 기후 변화에 특히 더 취약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글을 쓴다. 기후 변화는 오늘날 북반구의 부유한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난한 나라들에게 그것은 이미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었다. 필리핀과 같은 섬나라의 경우 해안 어촌과 해양 생태계는 더욱 심해지고 빈번해지는 폭풍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 토지 이용 변화(예: 삼림 벌채 및 채굴)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 문제는 식량 안보와 생물의 다양성을 위협한다.

마찬가지로, 인도는 전 세계에서 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에 든다. 위치와 지형으로 인해 사이클론, 가뭄, 홍수, 지진, 화재,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졌으며, 이러한 자연재해는 더욱 극심해졌다. 생태계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함께 인간에게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중에도 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에 가장 적은 책임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이다. 2019년 인도에서는 최소 10,281명의 농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이는 전체 자살의 7.4퍼센트를 차지한다.

필자들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이러한 사례들은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이에 대응하고 행동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가 감당하기에 벅찬 도전으로 인해 마비되었다. 이러한 도전들은 무엇이며, 글로벌 기독교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후 문제로부터 기회 창출

2012년 창조세계 돌봄과 복음에 관한 로잔 글로벌 협의(Lausanne Global Consultation on Creation Care and the Gospel)에서 비롯된 문서인 자메이카 행동 촉구(Jamaica Call to Action)는 세계 교회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절박하고 시급하며 우리 세대에서 해결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서는 발표된 지 이제 10년이 되었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주목하고 있어 여기서 그중 일부를 논하고자 한다.

도전 1: 세계 교회는 기후 문제에 더 많이 관여해야 한다.

기후에 대한 교회의 참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증가하는 고통을 무시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복음 증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주, 영국, 캐나다의 조사에 따르면 창조와 기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갈망하는 기독교 청소년들이 있지만, 그들이 속한 교회가 이 분야에 너무 적게 관여하고 있다고 느낀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후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갖추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온 교회는 창조와 구속의 성경 이야기 안에서 기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창조세계 돌봄은 기독교 사역에 전문가용 옵션처럼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구를 돌보는 책임을 주신 첫 번째 선교적 과업이었다. 피조물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핵심이며 지도자로서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기회 1: 현재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참여하는 상황을 기후 문제를 배우고 참여할 기회로 전환한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웃, 창조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따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지구를 돌보고 지구에 있는 풍부한 자원을 책임 있게 사용한다."

실천 단계 #1

기후 문제에 대해 더 배우자. 창조 신학과 실천에 관한 책과 기사를 읽자. 과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도전 2: 많은 그리스도인이 편안한 생활 방식에 익숙하고 단순한 삶의 방식을 주저한다.

기후 문제에 대응하려면 우리 일상생활 속 선택에 대한 정직한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창조세계에 대한 공정성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의롭고 겸손하게 자비롭게 살기 위해서는(미가 6:8) 이기심을 인정하고,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고, 규범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론,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환경 의식과 정의로운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기회 2: 교회는 예수님의 삶, 즉 다른 사람을 돌보며 단순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적용하며 본받아야 한다.

모든 피조물이 갈망하는 회복의 약속인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세상도 없다(롬 8장).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따라 노력해야 한다.

실천 단계 #2

교회안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실제 필요에 따라 시작하라. 우리가 행하는 일이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 평가하자. 지역의 소규모 농부들을 돕자. 제철 음식을 먹고 육류 소비를 줄이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소그룹으로 모여 각자의 실천에 대해 나누고 격려하자. 환경에 보존하는 전통적인 방식들을 연구하고 찾자.

도전 3: 부실한 창조 신학.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선교할 때 인간, 특히 영혼에 초점을 맞춰 왔다.

복음주의 교회는 창조세계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육체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의 주되심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있다.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하며, 창조세계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계획의 일부인지 성찰하고 토론해야 한다. 지도자들이 창조세계 돌봄을 복음의 문제로 가르친다면, 우리는 '지구를 구하라'는 압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구를 맡아 돌보도록 명하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예배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창조는 개인으로나 신앙공동체로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관해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가? 우리는 애통의 습관을 회복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는 고통과 억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는 야생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자주 회개하는가?

기회 3: 세상은 주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반응한다.

우리가 창조세계 돌봄을 제자도로서 수용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반응할 것이다.

실천 단계 #3

창조세계 돌봄을 기도, 성경 공부, 그리고 예배와 함께 일상적인 리듬이 되게 하자. 자연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

도전 4: 우리는 사람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이 사람들을 도외시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창조세계에는 사람도 포함된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은 사람들의 영적, 육체적, 사회적 필요(건강, 일, 가정, 안전)를 돌보는 것을 포함하며, 이 모두가 환경에 달려 있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는 이미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연계를 포함하도록 우리의 선교를 확장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을 돌보는 것과 자연을 돌보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둘다 하나님께 중요하고 회복을 위한 그분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기회 4**: 이미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기독교 전통/교단으로부터 배우자!

우리 모두가 창조세계의 모든 측면을 잘 돌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고려하도록 초대받았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면서 우리는 각자의 공동체와 상황에서 충실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곳이 어딘지를 분별할 수 있다.

실천 단계 #4

당신의 교회/단체에서 이미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요청하자.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구체적인 기회들에 대해 듣자. 토착 공동체들로부터 배우자.

도전 5: 지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해 보인다.

기후는 복잡하고 세계적인 문제이며,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 쉽게 낙담하거나 무시하고 말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한다. 창조세계 돌봄은 우리가 걷는 제자도 여정의 일부이다. 우리가 기도와 성경 공부를 일반적인 기독교 리듬으로 삼는 것처럼, 창조세계에 대한 관심도 일상생활의 일부로 통합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창조세계의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제자도의 일부로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충실하게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실수와 갈등을 창조세계를 돌보는 여정의 일부로서 포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우리는 인내하고 그 과정을 함께 통과해야 한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롬 8:19). 그리고 이것은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교회가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기회 5: 당신의 공동체가 머리, 가슴, 손 등 다양한 수준에서 참여하게 하라.

창조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소망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격려가 될 수 있다.

실천 단계 #5

일회성의 행사를 넘어 다년간에 걸친 참여에 헌신하자. 당신의 공동체가 숲, 강, 바다, 도시 등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소를 발굴하자.

더 깊이 나아가기

기독교 자료를 통하여 과학자들과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창조세계 돌봄의 깊이를 더하는 데 유익할 것이다. (교회와 선교 지도자들에게 적극 권장되는 내용은 다음의 '주'를 참조하라.)

- 보다 체계적인 창조세계 돌봄의 신학을 개발하자
- 생태학 렌즈로 성경을 공부하자
-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자
- 모든 창조세계를 위해 세계교회와 함께 기도하자
- 교회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환경 활동에 참여하자
- 전 세계의 현재 창조세계 돌봄 행사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아보자
- 창조세계 돌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개인 및 단체과 함께 활동하자
- 기후 정책 토론에 국제적 수준으로 참여하자

요약하자면, 우리가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은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응답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 때문이다.

by Kuki Rokhum, Jasmine Kwong, Dave Bookless, TGC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빌한인장로교회)

믿음의 백지수표(Blank Check of Faith)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마 9:27-30) 믿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 드리는 믿음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40년이나 결렸다고 합니다.

둘째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믿음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누구든지 이렇게 두 소경이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셋째는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마 9:28) 예수께서 두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의 질문은 바로 기적을 창조하는 큰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마 9:29,30)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마 21:21)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17,18)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 해도 하인이 낫는다는 믿음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입니다. 두 소경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소경에 눈을 밝게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줄을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마 9:28) 이 일 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실 줄 믿느냐는 믿음입니다. 두 소경의 눈을 밝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소경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며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마 9:29,30)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만지시며 선포하신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믿음의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백지수표를 사용합시다.(Let's Use a Blank Check of Faith) 이제부터 믿음의 백지수표를 사용하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 21:22)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수표에는 100달러라든지 아니면 1,000달러라든지 반드시 금액이 이미 써져있습니다. 그런데 백지수표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냥 금액을 쓰는 난이 공란으로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는 받은 사람이 100만 달러를 쓰면 100만 달러 수표가 되고 1,000만 달러를 쓰면 1,000만 달러짜리 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1달러를 쓰면 1달러 수표가 되고 5달러를 쓰면 5달러 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모그룹의 회장님이 미모의 여배우에게 백지수표를 주어서 세상에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백지수표 한 장 받았으면 좋겠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백지수표를 받았습니다. 백지수표를 받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백지수표가 휴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백지수표를 받고서도 사용하지 않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금액을 적으십시오. 믿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내시지 않으십니다. 믿음만큼 됩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주의 백성들은 모두 백지수표를 사용해서 능력있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바울이 세계 선교를 할 때 현금을 가지고 썼습니까? 카드를 가지고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지수표를 가지고 그 위대한 선교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바울의 백지수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였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백지수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소경이 믿음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마 9:28) 두 소경이 예수께서 능히 하실 줄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눈이 밝아 진 것처럼 믿음의 백지수표를 잘 사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나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여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한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25)

베풀고자 편 손에 채우시는…

종종 외부 선교지로부터 안타까운 편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십시일반이라고 '내 먹는 밥술, 하나씩 줄여 열 숟가락이 모이게 되면 한사람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나온다'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모임 때 내는 회비도 없고 하니 조금씩 돕자고 하면 늘 하던 분들만 참여하는데 왜 이렇게 참여도가 낮을까 하여 애달파지곤 합니다. 앞으로 노년을 혼자 보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묶일 수 있는 싱글들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혼의 첫째, 혹은 둘째사유가 된다는 물질문제로 헤어진 경우여서 물질에 집착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싱글들이기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남보다 많이 넉넉한 분이 반문할 때면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혼, 혹은 사별로 혼자 된 참가자들의 삶은 부부가 해로하는 삶보다는 아무래도 처지가 못한 경우가 많은 만큼 그들이 세상 떠난 후에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목소리를 높여 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최소의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고…. 멀리 선교를 가는 것은 물론 아니고 또 이웃을 전도하는 것이나 기도에 열심을 기울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이상, 그래도 감당하기에 용이한 것이 능력껏 헌금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사후뿐만이 아니라 노후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하는 염려 또한 더해집니다. 성경에 2000번 정도의 물질, 돈에 관한 구절이 있다고 하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 절반 이상이 물질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헌금이 신앙생활의 척도가 될 만큼 신앙과 밀접한 관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 19:17) 이런 말씀과 더불어 헌금을 통해 남다른 은혜를 체험한 분들의 간증을 부단히 전했더니, 드디어 물질에 단단하던 분이 지갑을 여는 것을 봤을 때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비를 위해, 손을 폈을 때 그 편 손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다른 분들을 위해 운전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봉사는 흔쾌히 하지만 형편이 됨에도 전혀 참여치 않아 답답했기에 더 애절한 기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헌금을 보낸 후 현지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편지나 사진들로 경과보고를 함으로 뿌듯한 마음이 들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수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 6:38)"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부모사역자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신앙고백이 있는 헌금을 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그 풍성한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수시로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516)520-2004 www.gcnyk.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Tel.(718)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 6:00(토)
수요비전기도회: 오전 10: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00(셋째주)
Tel.(516)387-9940, 9942(EM), www.cpcof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12:00
영어예배: 오전 9: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00
금 요기 도 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8:00
Tel. (718)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월-토)
Tel. (718)762-2525, 5756, www.hyo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어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 벽 예 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토요일 오전 5:30
Tel.(718)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월-토)
Tel.(917)733-7387, bmsc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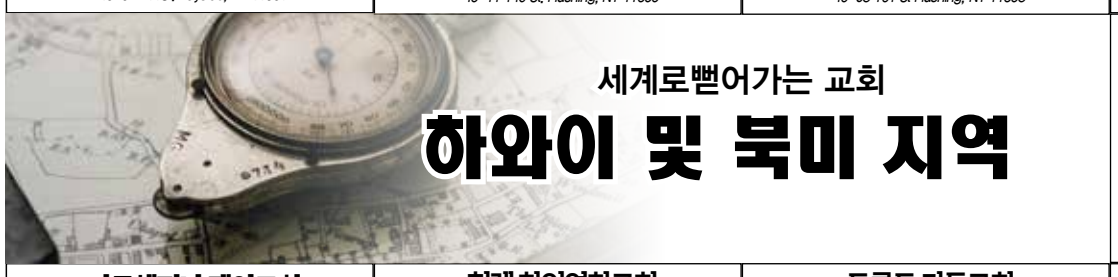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오전6:00
Tel.(845) 359-1458, http://on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6:00
Tel.(718)886-4040,www.kapcq.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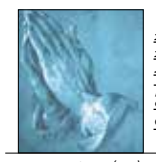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보배로운 사람

옛날 중국의 초나라 예왕때에 변화라는 사람이 형산에 올라갔다가 옥돌을 발견하고 그 옥돌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감정사에게 감정을 해보니 옥이 아니라 돌이라하여 왕은 대노하여 왕을 속인죄로 변화의 왼쪽다리를 잘랐습니다. 변화는 억울했지만 참고 기다리다가 예왕이 죽고 문왕이 등극했을때 그 옥돌을 갖다 바쳤습니다. 문왕이 그 돌을 감정해 보았는데 이번 감정사는 그 돌을 직접 깍아보니 그 속에 수정같이 맑은 옥이 나타나는데 밤이되면 빛을 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왕이 크게 감탄하여 변화에게 대부란 벼슬을 주고 평생을 존귀하게 대우했다고합니다.

우리가 이 어둡고 악한 시대에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앞에 존귀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홍수심판 직전의 악한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앞에서 그 믿음이 옥보석보다 더 보배로워 에녹은 죽음을 보지않고 들림받았고 노아는 환난 중에 온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북쪽에 있는 알래스카는 원래 구소련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사람들이 이 땅을 보니 전혀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산지사방이 전부 얼음덩어리로 덮여있었고,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 미국의 존슨대통령이 미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William Seward)를 은밀하게 대통령실로 불러서 소련 땅인 알래스카를 구입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회의 반대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존슨 대통령은 스워드 장관에게 어떤 위험이 있어도 이 일을 완수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워드 장관은 존슨대통령을 신뢰하였기에 그는 바로 주미 러시아공사 스테클(Stoeckl)과 협상하여 1867년 3월 30일에 러시아 황제의 허락을 받아 알래스카를 당시 돈 720만불에 구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미화 1억6천만달러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상·하원 국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재 미국내 인디언들을 다스리는데도 벅찬데, 왜 본토와 멀리 떨어진 쓸모없는 땅을 그 비싼 가격에 구입했느냐고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미국무장관 스워드는 그 모든 비난이 존슨 대통령에게 가지 않도록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하여 알래스카 땅을 조사한 결과 거기는 금과 은과 석유와 천연가스가 무진장 매장되어있고, 양질의 철광석과 구리와 아연이 생산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는 사실을 밝혀내고는 그 즉시 국무장관과 존슨 대통령에게 대표를 보내어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워드 장관은 이 일로 일약 미국의 영웅이 되었고, 미국회는 3월 마지막 월요일을 스워드의 날로 지키기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워드 장관이 존슨 대통령을 믿었기에 그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 수행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지켰기에 그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켜" 이 땅과 오는 세상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songkpak@hotmail.com

CA…다음세대 지키고 보호하기 청원서 서명운동 전개

"다음세대를 지키려면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야 할 때"

캘리 다음세대 보호를 위한 청원서 서명 운동 설명회 및 기자 회견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자녀의 성정체성 회복, 학부모의 권리 회복, 여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발의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한 청원서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이를 위한 설명회 및 기자회견이 19일(금) 오전 10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새신자실에서 열고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한인들이 이번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TVNEXT(다음 세대를 위한 가지관 정립 및 보호 단체) 새라김 대표를 비롯하여, 유수연 ABC 통합교육구 교육위원,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OC 목사회 이원석 회장, 최영봉 남가주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다음세대를 지키려면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야 할 때"라며 "최근에 통과된 9개 친동성애 법안들은 자녀의 성정체성과 관련, 부모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비상식적 내용을 담고 있어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한인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서 서명운동이 성공하면 출생시 성별에 따라 화장실·샤워실 사용 의무화,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여자스포츠 참여 금지, 미성년자 트랜스 시술 금지, 학교가 트랜스가 되는 과정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학부모에게 통보 의무화 등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한기홍 목사는 "2008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프로포지션 8때는 그 법안이 무엇인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몰랐었다"며 "다행히 많은 분들의 참여로 프로포지션8이 통과가 되었던 기억이 있다. 이번 주민발의안도 상정이 되어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미국이 바로 설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승훈 목사는 "교협회장을 하던 2008년 당시 동성애에 지지율이 반대보다 앞서있었고 동성결혼법안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많았다. 프로포지션8 통과를 위해 새들백교회나 갈보리채플 등 주류교회에 협력을 구했는데 모두 거절당했다"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프로포지션8이 통과 될 수 있었다. 그들은 카톨릭과 중남미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회상했다. 김수연 대표(Refounders United) 는 "현실 체크가 필요하다. 1세 목사님들에게 동성애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40대만 가 봐도 동성애 반대를 극단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인다. 미국에서 태어난 20-30대는 이미 친동성애적인 교육을 다 받았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교수들과 교직원들 대다수가 무신론자이고 동성애 지지자"라며 "미국 주류 사회는 이미 동성애가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이미 동성애자는 주류 세력이 되었고 우리가 마이너 세력이 되었다. 다 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교회 안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 대학에 보내면 아이가 완전히 변해서 온다. 이미 동성애에 영향 받아서 돌아온다. 이것으로 인해 혼란이 오고 우울증에 빠져 약과 술을 하게 되고 죄책감에 빠진다"고 현 상황을 대변했다. 주혁로 목사(주님의빛교회) 역시 "어른이 되면 목사가 되겠다던 믿음 좋은 아이가 대학에 가서 기숙사에 머물며 교육을 받았더니 동성애 옹호론자이자 불신자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었다"며 "심지어는 미성년 아이들은 18세 성인이 되면 어떤 성으로 살게 될지 결정할것이라고 친구들과 대화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해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발의안이 반드시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을 피력했다. 한편 청원서가 11월 주민발의안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약 55만명의 가주 유권자 서명이 필요하다. 한인사회 목표는 10%인 5만5000~5만7000명의 서명을 확보해 오는 4월13일까지 TVNEXT.org로 보내는 것이다. 청원서 서명을 위한 파일은 TVNEXT.org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파일의 4, 5, 6, 7페이지를 출력한 후 마지막 페이지(7)에 서명을 받으면 된다. 새라김 대표는 "청원서 서명은 한 페이지에 5명까지 할수 있는데 청원서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청원서에는 시민권자 유권자들이 서명해야 하며 모두 같은 카운티에 거주해야 하며 한명이라도 다른 카운티 거주자일경우 청원서는 무효가 된다. 또한 검정팬이나 파란색 팬으로 서명해야 하며 그 외에는 모두 무효처리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명할 때 오른쪽 'Office Use Only'칸에는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아야 한다. SB48이나 클래스액트때처럼 칸을 조금이라도 넘을 경우 서명자의 글이 넘어가는 것이 무효화하지는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여길 경우 주정부에서 말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칸을 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서명란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지난번의 경우 제출된 청원서중 상당수가 문제여부를 떠나 폐기처분이 된 전례가 있기에 서명완료된 청원서는 TVNEXT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청원서 작성 후 TVNEXT(남가주 주소: 16030 Las Palmeras Ave, La Mirada, CA 90638, 북가주 주소: 2054 Colusa Way, San Jose, CA 95130)로 보내면 된다. 캠페인 관련 상세 정보 www.TVNEXT.org, (714)873-9164

〈박준호 기자〉

민주평동 LA협의회 종교분과 위원회 신년하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평통 LA협의회 종교분과위원회 신년조찬기도회

"목표를 가지고 푯대를 향하여 전력질주 하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회장 이용태) 종교분과 위원회(정요한 목사)는 1월 20일(토) 오전 7시 30분 가든스윗호텔에서 2024 신년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도회는 정요한 목사 사회로 개회되어 장병우 상임부회장의 대표기도, 진복일 찬양사역자와 함께하는 평통여성찬양단의 특별찬양, 그리고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목사가 '푯대를 향하여(빌3:13~14)'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조국의 평화통일과 발전을 위하여(최영봉 남가주교협회장), 공공외교와 차세대를 위하여(지용덕 연세아카데미 회장), 남가주 교계 화합을 위하여(김엘리야 목사), 한인커뮤니 발전을 위하여(정도영 장로, 전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 각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찬기도회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회장 송정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신승훈 목사는 이날 설교를 통해 "신년을 맞이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목표를 가지고 푯대를 향하여 전력질주하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평통 LA협의회 종교분과위원회〉

나성한인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예배에서 신동철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나성한인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예배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과 교회를 지켜야"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 창립 48주년 기념예배가 21일(주일) 예배시간에 거행됐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신동철 목사 사회로 열린 11시 예배는 임종훈 장로 기도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숭실대 중창단 특송이 있은 뒤 설교로 이어졌다. 신동철 목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행20:22-25)'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48주년을 맞이한 우리 나성한인교회의 교우들을 위해 4가지를 권면하고 있다"며 "첫째,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둘째, 모든 직분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 삼가야 한다. 셋째,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과 교회를 지켜야 한다. 넷째,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임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수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씨앗삼아 주님의 거룩한 몸이 십자가에 찢겨져 이 땅에 뿌려진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천국의 알곡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눈물과 수고, 그리고 땀과 사랑을 교회에 기꺼이 주는 자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은퇴식과 임직식이 거행됐다. 이 날 임성기 장로와 임미혜 권사가 은퇴했으며 장호섭 집사가 시무장로로, 이상자, 장효숙, 정현애 집사가 권사로 취임했으며 김원덕, 우윤희, 윤현진, 이은숙, 전동임 집사가 권사로 임직했다. 또한 강사라, 박순출, 송혜정, 신정례, 윤수자, 조정심 집사가 명예권사로 추대 됐으며 이항률 집사와 홍승현 집사가 안수집사로 임직됐다. 이어 김철원 목사(나성한인교회 전 설교목사)가 권면과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신동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2024년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국

〈3면에서 계속〉

오픈도어는 기독교 박해의 주요 원인을 8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슬람 억압(30개국): 이슬람 박해는 전체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을 포함해 추적 대상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박해 원인이다. 30개국 중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이거나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6개국은 실제로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나이지리아(6위), 중앙아프리카공화국(28위), 에티오피아(32위), 모잠비크(39위), 콩고민주공화국(41위), 카메룬(43위) 등이다. 독재적 편집증(11개국): 시리아(12위), 우즈베키스탄(25위), 방글라데시(26위), 투르크메니스탄(29위), 타지키스탄(46위), 카자흐스탄(47위)뿐만 아니라 북한(1위), 에리트레아(4위), 미얀마(17위), 쿠바(22위), 니카라과(30위) 등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를 중심으로 11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박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산주의 및 공산주의 이후의 억압(34개국): 이는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박해의 주요 원인으로, 모두 아시아에 위치한 4개국에서 발생한다: 북한(1위), 중국(19위), 라오스(21위), 베트남(35위)이다.

종교적 민족주의(23개국): 종교적 민족주의는 아시아 3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박해의 주요 원인이다. 인도(11위)에서는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이, 미얀마(14위)와 부탄(36위)에서는 불교 민족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 조직범죄 및 부패(2개국): 콜롬비아(34위)와 멕시코(37위)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박해의 주요 원인이다. 부족 탄압(21개국): 예멘(5위)과 요르단(48위)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박해의 주요 원인이다. 세속적 편협(0개국) 및 기독교 교파 보호주의의 종족 탄압(0개국): 오픈도어는 해당 박해의 원인을 추적하고 있지만, 2024 리스트의 50개 국가 중 어느 곳에서도 주요 원인은 아니었다.

By Jayson Casper, CT

동부교계 게시판

디모데목회훈련원 목회자세미나

디모데목회훈련원(원장 이용걸 목사)은 2024년 1월 29일(월)~30일(화) 오전 9:30부터 오후 3시까지 뉴저지 동산교회(윤명호 목사 담임)에서 목회자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201-229-156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든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든노회(노회장 허상회 목사)는 1월 30일(화) 11시 뉴욕양무리교회(이준성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린다.

▲ 문의: 201-981-0009

뉴욕목사회, 신년교계지도자토론회

뉴욕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점들과 현안을 토론하고 한인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자 '교계지도자 토론회'를 1월 29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후러싱제일교회(시무 김정호 목사)에서 개최한다.

▲ 문의: 201-675-9591, 917-682-4566

RCA 한인교협, 연합 말씀 사경회 및 목회자 세미나

RCA 한인교협은 이 덕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연합 말씀 사경회를 "목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월 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목회자 세미나를 "목회란 무엇인가(행 1:8)"라는 주제로 1월 29일(월) 오전 10시에 뉴저지영광교회(정광희 목사 사무) 에서 개최한다.

▲ 문의: 201-638-0827

2024 BLESSED 컨퍼런스

2024 BLESSED 컨퍼런스는 '기도와 영성훈련'이라는 주제로 박찬섭 목사(뉴저지초대교회), 노진산 목사(믿음으로사는 교회), 박반석 목사(은혜채플)를 강사로 초청하여 2월 3일 뉴저지초대교회 교육관에서 개최한다.

▲ 문의: 551-216-1330

2024 열린말씀 컨퍼런스, 사랑을 연습하는 공동체

2024 열린말씀 컴퍼런스가 '사랑을 연습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한성윤 목사(나성남포교회), 최재만 목사(토론토한우리교회), 류인현 목사(뉴프론티어교회), 김은일 목사(CA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총장), 박성일 목사(필라 기쁨의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2월 2일(금)부터 4일(주일)까지 아틀란타새교회(조영천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770-447-6663

한동대 & 뉴욕한인청소년센터 국제여름캠프

뉴욕한인청소년센터(Korean Youth Center of New York)와 한국 기독교명문 한동대학교가 오는 7월7일부터 21일까지 '제6회 한동대학교 & 뉴욕한인청소년센터 국제여름캠프'를 개최하여 등록을 받는다.

▲ 문의: 718-353-1388, www.kycny.org(사무총장 최지호 목사)

뉴저지연합 북한선교 컨퍼런스

북한기독교총연합회는 '미주한인교회와 탈북민교회의 동행 북한선교'라는 주제로 2월 17일(토)부터 20일(화)까지 뉴저지동산교회, 필그림선교교회에서 2024 뉴저지연합 북한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문의: 김주헌 목사 201-870-337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사진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더 크고 더 넓게 더 높게 펼쳐질 주의 사역"

50주년을 맞이하는 뉴욕교협(회장 박태규 목사)은 1월 16일(화) 오후 5시 KCS(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We are the Community"라는 주제로 신년 감사예배 및 하례만찬를 개최했다.

회장 박태규 목사는 "뉴욕교협이 50주년 희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와 신년하례만찬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며 기도와 협력으로 50년 동안 달려왔고 앞으로 더 크고 더 넓게 더 높게 주의 사역을 펼칠 것이다. 또한, 세계할렐루야대회를 준비 중이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인사했다.

유승례 목사(신년하례준비위원장)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김원기 목사(사회봉사위원장)의 기도, 조엔리 권사(이사장)의 성경봉독, 뉴욕장로성가단의 찬양, 손경호 목사(WPC총회장)의 설교,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의 헌금송, 황규복 장로(장로연합회회장)의 헌금기도, 황경일 목사(증경회장단의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손경호 목사는 '하늘에 비전을 품고 사는 인생 (창 13:14-18)'이란 제목을 통해 "우울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길밖에 없다. 그 믿음이란 하늘이 보여준 비전대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결실을 맺는다. 모든 어두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교회와 각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설교했다. 2부 신년하례식은 단체장 및 교회리더들 소개 및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권 목사(뉴저지교협회장)는 "뉴욕교협과 커뮤니티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공동체는 서로 연약해질 때 하모니가 되어 질 수 있음을 믿는다. 뉴욕교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번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뉴욕교협은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해 준 이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뉴욕성가단을 비롯한 많은 합창단과 특별연주가 있은 뒤 안창의 목사(증경회장)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복음뉴스, 창간 7주년 감사예배

여기까지 온 것은 ... 바로 사랑의 힘

복음뉴스(발행인 김동욱 목사)는 창간 7주년을 맞이하여 1월 21일(주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발행인 김동욱 목사는 "7주년 감사예배를 준비하며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 연락하고 이틀 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너 감사예배 왜 드려?'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니면 축하순서를 통해서 네가 칭찬받고 복음뉴스 칭찬받고 너 그것을 원해서 감사예배 드리는 거야'라는 책망하시는 마음이 밀려왔다"고 고백하며 "다음 감사예배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온전히 예배만 드리겠다며 축하 순서가 없어지더라도 좋게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허연행 목사는 '기름 부으심(창 29:20)' 제목을 통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7년으로 느끼지 못하고 수일같이 여겼다. 복음뉴스는 교계와 동포사회를 향하여 단 소리뿐 아니라 쓴 소리도 하는 신문으로 힘든 일도 많았으리라 생각되며 팬더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의 힘이다"라며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열정(Passion)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그것은 사랑 때문이다. 복음뉴스도 사랑의 힘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려운 길이지만 열정을 가지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잘 달려가기 바란다"고 설교했다.

창간 7주년 감사예배 후 양경욱 목사 사회로 축하의 시간을 통해 김성국 목사(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인/퀸즈장로교회)는 "언론의 역할을 빛이 되어서 그 시대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하는 것이며 소금으로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맛난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김동욱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게 해 오셨고 빛과 소금이 되어 주셨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환영사 정관호 목사(준비위원장), 복음뉴스에 바란다 장규준 목사(ACE 사무총장), 축사 김홍석 목사(전 뉴욕교협회장)와 홍인석 목사(전 뉴저지교협회장)가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임관순과 김영환의 축가가 있었으며 하명진 선교사가 복음뉴스를 위해 기도 한 후 박희근 목사의 폐회 및 식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복음뉴스 창간 7주년 감사예배 사진

출산을 장려하는...

〈2면에서 계속〉

자유주의나 복음주의 집단 중 그 어디에서도 하우어워스가 2001년에 발표한 글에서 말했던, 자녀 출산에 대한 "급진적 소망"과 같은 말을 하는 신학자는 만날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갖는 것이다. 자녀를 먼저 낳아야 하고, 그런 다음 우리 삶의 다른 측면을 '내게는 자녀가 있다'라는 현실에 종속시켜야 한다." 하우어워스는 불편하지만 절실하게 필요한 진실을 말한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이 원하지 않는 어린이들을 환영"할 만큼 급진적인 소망을 품고 있는가?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소망

출산, 입양, 양육, 봉사 등에서 우리가 출산을 원하는 사람(pro-children)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성경 전체에 걸쳐 있다. 고대 세계에서 억압받던 여성, 어린이, 기타 약자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보이신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구약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패턴을 이어간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문화적으로 열등한 대상이었던 과부, 둘째, 외부인과 어린이를 높이셨다.

학자들은 성경에 번식과 자손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었음을 입증한다. "씨"(자녀, 후손)라는 모티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다. 이는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 교회, 새 창조 등 모든 주요 순간에 필수 요소이다. 인류에게 내려진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8)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 즉 자신의 형상을 온 땅에 전파하라는 명령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마침내 성취된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왕국을 "열방"(요한계시록 21장),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요한계시록 7:9)로 구성된 하나의 "성(도시)"으로 묘사한다.

역사적으로 씨와 번식이라는 모티프가 상상력을 자극했을 때 교회는 번성했다. 초기 교회는 여성과 어린이를 포용하고, 죽도록 내버려진 유아를 입양하는 등 적극적으로 생명 옹호의 입장에 섰다. 바로 그 점에서 교회는 로마 문화보다 우월했고, 그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약자를 통한 교회의 성장은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까지 놀라게 했다. 어린이를 포함하여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모습이다.

소망은 오로지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다

자녀 양육이 소망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희생과 지연된 만족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희생은 아이들이 자라서 광범위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하우어워스는 이렇게 썼다. "아이들에게는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즉 권력, 부, 그리고 영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독실한 신자들의 특징이다.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종교를 중요시하는 여성일수록 출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다. 교회에 충성하는 신실한 여성일수록 더 많은 자녀를 원한다. 그렇다고 출산만이 취약한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건 아니다. 더불어서 개인에게 일일이 출산의 소명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교회는 단체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투신할 수 있다. 특히, 예수님은 독신의 길을 영원히 존귀하게 여기셨다. 구원과 성화 활동을 통해 독신자도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다. 그러나 독신에 대한 확신이 결혼이라는 소명을 통해서 이뤄지는 생물학적 출산이라는 축복을 과소평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우어워스의 지적이다. "결혼은 자녀를 목적으로 하는 관행이다. … 결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고 돌보라는 부르심과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회는 이 소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녀를 갖는 것이 교회에서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라면, 세상에 의해서 제자화 되는 길을 피할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출산에 관한 설교가 그 안에 담긴 신학적 복잡성을 간과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 점이 경시되어 왔다.

내게는 여전히 답보다 질문이 더 많다. 피임 기구 사용과 관련하여 복음주의자가 고려해야 할 윤리 문제는 무엇인가? 피임은 이제 어디에서나 만나는 일상이다. 따라서 성도들이 여기에 관해서 신학적 입장을 형성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비전, 어떤 윤리적 패러다임과 지혜의 인도를 받아야 할까?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잘 가르치지 못한다면,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도를 키울 수 있는 영역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는 인공수정 기술과 관련해서 적절한 사용과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받는가? 자녀를 갖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이유와 적절한 임신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까?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부부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 결혼이라는 목적 속에는 반드시 출산이 포함되어야만 하는가?

팀 켈러는 물질주의와 같은 우상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양한 계층으로 이뤄진 소그룹을 통해서 이뤄지는 깊은 공동체 의식과 투명성을 통해서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서 서로 간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피드백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자녀를 갖는 것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그에 수반한 윤리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 간에 믿음과 책임을 지며 동시에 개별적인 조언까지 주고 받을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이다. 출산과 관련해서 제자 훈련을 하려는 교회라면 꼭 필요한 이 문제를 도발적으로 제안한 하우어워스에게 감사해야 한다. 아기를 갖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은밀하고 어색한 주제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다뤄야만 하는 중차대한 주제이다.

by Heidi H. Dean, TGC

300용사부흥단 뉴욕횃불기도회

침체된 한국교회의 예배와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300용사부흥단 뉴욕횃불기도회 포스터

한국의 기도의 용사들이 뉴욕에 와 기도회를 가진다. 뉴욕에 오는 300용사부흥단은 코로나 팬데믹 후에 온라인으로 목회환경이 변화되고, 침체된 한국교회의 예배와 부흥을 기도하기 위해 2022년 5월에 정주갑 목사가 대표총재로 하여 출범했다. 300명을 목표로 회원을 모집 중이며, 현재 130여명이 회원으로 있다.

뉴욕횃불기도회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오전 10시와 오후 8시, 하루에 2번 집회가 열린다. 29일(월)에는 뉴욕새사람교회(담임 이종원 목사), 30일(화)에는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 31일(수)은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린다. 집회는 찬양 40-50분, 말씀 20분, 기도 1시간 등 총 2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뉴욕에 오는 300용사부흥단 멤버는 대표총재 정주갑 목사(서울예종교회), 신요한 목사(서기, 원뉴맨교회), 오승준 목사(총무, 강남순종교회), 신동인 목사(재정위원장, 한마음한길교회), 조남숙 목사(예배팀장, 새비전교회) 등 8인이다. 뉴욕에서는 지역교회부흥선교회를 설립하고 300용사부흥단과 비슷한 사역을 해 온 허윤준 목사가 300용사부흥단 뉴욕본부장을 맡아 집회를 준비한다.

〈정리: 김재상 기자〉

토렌스조은교회 창립33주년 감사예배에서 김요셉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토렌스조은교회 창립 33주년 감사예배

"다음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해야"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는 창립 33주년 감사예배를 21일(주일) 예배시간에 가졌다. 김우준 목사는 "토렌스조은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 섬김과 눈물과 기도로 함께한 성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본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우준 목사 사회로 11시30분에 열린 3부 예배는 김상균 장로가 기도했으며 성가대 찬양과 김우준 목사 환영메시지를, 김요셉 목사(수원 원천침례교회 담임, 중앙기독학교이사장)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창 26:23-25)'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요셉 목사는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모두가 제자되어 삶을 드리는 헌신이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으로 전수가 되었듯이 우리들의 가정역시 믿음이 전수가 되어 다음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있던 부끄러운 역사는 아내를 누이로 속인것이다. 아브라함의 죄를 이삭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이삭의 이야기가 한장에 나오는데 죄이야기가 나온것은 영성보다 죄성이 먼저 전수됨을 알려주는 것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전수하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 죄성"이라며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려면 부모자신의 죄가 조명되고 말씀앞에 죄성이 무너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에 이어 김우준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했다. 이날 예배는 김요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김요셉 목사를 강사로 자녀교육세미나가 열렸다.

〈박준호 기자〉

OC장로협 회장과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OC장로협 회장 취임 이사장 이취임식

"성평등법에 맞서 광야에 외치는 자 될 것"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이 22일(주일) 오후 4시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장으로 취임한 배기호 장로는 "선임 회장들의 믿음의 유산을 잘받들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첫째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훼손하는 성평등법에 맞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겠다. 둘째 코로나시기를 지나며 교회가 위축되었다. 장로협 회원들이 단결하여 OC 지역에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각 교회가 하나의 우산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OC지역에 5000여명의 장로들이 있다.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사장 김영수 장로는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섬기겠다. 기도해주시고 권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훈 미주복음방송 아나운서 사회로 열린 이취임식은 그랜드페스티벌 콰이어(지휘 강민석) 찬양으로 시작, 김용진 장로(9대 회장)의 이임사, 배기호 장로(10대 회장) 취임사가 있었으며 배기호 취임회장이 김용진 이임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영수 장로(9대이사장)의 이사장 취임사가 있었다. 이어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와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가 축사했으며 CTS남성중창단이 축가를 불렀다. 이어 조봉남 장로(OC한인회장), 박재만 목사(OC교협회장)가 축사했으며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장로협 임원들에게 축복기도했다. 이어 아리랑 합창단과 OC장로협의회 회원들이 함께 특송을 불렀으며 김태수 장로(5대회장) 기도로 마쳤다. 한편 조옥창 장로(부회장) 사회로 열린 1부예배는 황치훈 장로(7대 회장)가 기도했으며 김창달 장로(부이사장)가 성경봉독,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호산나 성가대가 특별찬양했다. 이날 남성수 목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빌 1:27-3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신년 하례식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쾌 장로, 이하 세기언) 신년하례식이 22일 12시 온달레스토랑 회의실에서 전임 회장들을 초청한 가운데 열려 예배로 한해를 시작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신년감사예배는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위클리 발행인) 인도로 시작돼, 서종천 목사(크리스천투데이 발행인) 기도, 설교 임종희 목사(세기언 증경회장, 복음방송 설립인), 마침기도 이성자 지사장(미주크리스천신문)으로 진행됐다.

임목사는 사무엘하 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자라고 하며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슬퍼했으며 결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해치지 않았다."며 "하나님은 기름부은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축복하신다. 이 시대의 언론인으로 부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귀한 사역을 끝까지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복음 방송 시작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듯 들려주어 참석한 이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 주었다.

이어 세기언 회원들은 올 해로 10회째를 맞는 '독후감 공모전'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세미나 등을 준비해 언론의 사명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조명환 목사는 참석자 전원에게 귀한 점심을 대접했다.

〈이성자 기자〉

언론인협회 신년하례식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임종희 목사

한인 청소년들이 뽑은 2023년 '한인사회 영웅으로 선정된 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년 한인사회 영웅 북 사인회와 리셉션 열려

"전 세계에서 또 다른 우리 영웅들을 발굴하고 기록할 것"

한인 청소년들이 뽑은 2023년 '한인사회 영웅(2023 Heroes and legends)' 북 사인회와 리셉션이 지난 20일(토) 오후 5시 LA 용수산 식장에서 열렸다. 청소년들이 뽑은 2023년 한인사회 영웅으로 선정된 인물은 비행기 조종사 제스터 장 박사, 장소현 작가, 차세대 교육자 Teddy Choi, UDLA 창립자 루벤 허난데스, CJ ENM AMERICA 엔젤라 킬로엔 대표, LA소방국 에일 맥 부국장, 3가 초등학교 교장 수지 오 박사, 한국어진흥재단 모니카 류 이사장, 수필가/방송인 위진록 씨,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해 헌신해 온 글로리아 김 선교사 등 11명이 선정되었다. 행사를 주관하는 크리스토퍼 리(Christopher HK Lee) 감독은 "120년 이민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 한인사회에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힘든 이민 생활 속에도 모든 희생과 고생 끝에 성공을 이루었으며, 우리 한인타운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했다. 이 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공로상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겠지만, 이보다 더 값진 상은 미래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를 위한 멘토가 되고 우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나와 함께 하는 'Heroes and Legends'들은 철저한 리서치를 통해 우리 후손들의 시선에서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멘토와 우상이 되실 분들을 선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에 2022년에 선발된 영웅들을 기록한 책 'Heroes and Legends'를 출간했다. 이 책은 주요 대학교와 도서관에 보내져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했다. 우리 학생들이 중요한 역사를 스스로 배워나가고 기록하여 본인들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Heroes and Legends는 엘에이를 비롯 미국 주요 도시로 확장하고 전 미국과 해외에서도 또 다른 우리 영웅들을 발굴하고 기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리 감독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는 선정된 11명에 대해 학생들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저녁만찬 후 축하공연이 있었다.

〈박준호 기자〉

나성순복음교회 어린이 성가대

마틴루터킹 주니어 데이 기념예배에서 공연

마틴루터 킹데이를 맞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어린이 성가대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에벤에셀 침례교회(Ebenezer Baptist Church)에서 열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Martin Luther King, Jr. Day) 기념예배에서 찬양과 공연을 선보였다.

이 행사에서 이영훈 목사(한국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의 축사에 이어 한국을 대표한 특별순서로 2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어린이 성가대원은 한복을 입고 아리랑과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를 편곡하여 전통부채 춤과 함께 선보인 후, 갓 블레스 아메리카(God Bless America)를 불러 기립박수를 받았다.

마틴 루터 킹 데이는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탄생일인 1929년 1월 15일을 기념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어 1986년부터 매년 1월 셋째 월요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키고 있으며 에벤에셀 침례교회는 킹 목사가 암살되기 직전까지 8년간 시무했던 교회로, 매년 마틴 루터 킹 데이에 기념식을 열고 있다. 본 교회는 매주 출석 인원이 6천 명에 달하는 대형교회로, 교회 주변에는 킹 목사의 업적을 기리는 마틴 루터 킹 국립역사관(Martin Luther King, Jr. National Historical Park)과 킹 센터(The King Center) 등이 소재해 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월드미션대 DSLIM 파운데이션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교육

월드미션대학교와 DSLIM Foundation(디에스림 파운데이션)은 장애인가족 역량강화교육을 오는 2월6일부터 3월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Zoom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 문의: (213)388-1000

주님의영광교회 창립25주년 감사예배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혼 목사)는 창립25주년 감사예배를 28일(주일) 예배시간에 갖는다. 이날 2부예배 시간(오전 10시30분)에는 안수집사, 권사, 명예장로, 명예권사 임직식을 갖게 된다.

▲ 문의: (213)749-4500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하는 찬양간증집회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하는 찬양간증집회가 오는 2월 초 남가주 3개 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찬양간증집회엔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현 한국 오라클 대표이사 사장)이 참석하며 배우 김정화(SBS 동상이몽 2 출연, 기아대책 홍보대사), CCM 가수 유은성 전도사가 출연한다. 교회별 찬양간증집회 일정은 2월 2일(금) 저녁 8시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김도일 목사)에서 유은성, 김정화 찬양집회, 2월 4일(주일) 오전 11시 토랜스 선한목자교회(이승혁 목사)에서 유은성, 김정화 찬양집회, 2월 4일(주일) 오전 8시, 11시엔 나성한미교회(홍충수 목사)에서 유원식 회장 특강이 열린다.

▲ 문의: (703)473-4696

OC전도회연합회 회장 이사장 취임 및 신년하례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 이사장 취임식 및 신년하례 감사예배가 27일(토) 오전 10시30분 가나안장로교회(담임 김인철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562)399-2022, (213)700-7877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신년축복성회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신년축복성회가 25일(목)부터 28일(주일)까지 '새 은혜로 새해를 승리하자(히 4:16)'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성회의 강사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25일(목) 오후 7시, 26일과 27일(금,토) 오전 5시30분, 28일(주일) 1-3부예배시간이다. 한편 같은날 중고등부 부흥회가 열리며 강사는 샘한 목사(은혜한인교회 EM)가 맡는다.

▲ 문의: (808)536-7244

센터메디컬그룹 한인 시니어를 위한 건강세미나

센터메디컬그룹의 '건강 세미나'가 '100세시대, 당신의 노후는 준비 되셨습니까?'라는 주제로 30일 South Park Manor Co-op Apartments (17100 South Park Ln, Gardena, CA 90247)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미국 가정의학과 보드 전문의인 김학준 주치의가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강연한다. 또한 건강 세미나에 참여한 시니어들에게 선물도 준비된다. 일정과 장소는 오후1시 "Meadow Rock" 동 커뮤니티 룸, 오후2시 "South Park"동 커뮤니티 룸, 오후3시 "Garden Valley Tower"동 커뮤니티 룸이다.

▲ 문의: (714)980-3532

숭실대학교 웨스트민스터 합창단 공연을 마친후 합창단원들과 동문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숭실대학교 웨스트민스터 합창단 연주회

"건학이념을 가지고 선교와 봉사 정신을 실천"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 박사) 웨스트민스터 합창단 (지휘 장세완 교수) 연주회가 20일(토) 오후 3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탁재동 숭실대학교 남가주동문회장은 "숭실대학교는 1897년 미국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 교수에 의해서 평양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대학"이라 소개했다. 그는 "숭실대는 1938년 일제강점기때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자진 폐교하고 1954년 서울영락교회에서 재건 된 학교이다. 동문으로는 조만식 선생 등 민족 지도자와 김동진, 현재명, 안익태 등 수많은 음악가를 배출했으며 한경직 목사 등 기독교 지도자, 황순원, 김현승 등 많은 문인들을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탁 호장은 "1958년에 창단된 웨스트민스터합창단은 '진리와 봉사'라는 숭실대학교의 건학이념을 가지고 선교와 봉사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합창단"이라 소개하고 "오늘 연주회가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선한 목자되신 우리 주', '나의 사랑하는 책','날 사랑하심', 'amazing grace', 'I believe', '할렐루야', '재즈 할렐루야' 등 성가곡과 '도라지꽃' 등 가곡을 불렀으며 앵콜곡으로 '향수', '도나 노비스 파쳄'을 불렀다. 이날 연주회는 숭실대학교 교가를 부른뒤 마쳤다. 한편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은 17일(수) 나성영락교회, 19일(금) 감사한인교회, 그리고 21일(주일) 나성한인교회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나성순복음교회 어린이 성가대원들이 마틴루터 킹 데이 행사에서 부채춤을 선보이고 있다

영성·음악·영어 다 잡았다 "다음세대 예배자로 양육"

"다윗처럼 예배하자!"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은정감리교회(최상일 목사) 더워십 하우스에서 열린 '데이빗 캠프'는 참석자들의 힘찬 구호로 시작됐다. 다윗처럼 예배하는 다음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마련된 캠프는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다. 영하 10도에 달하는 한파임에도 초교파적으로 열린 캠프에 45명의 학생과 15명의 사역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악을 전공하는 예고생 A양은 "음악을 통해 예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교회 겨울 수련회로 참석한 B군은 "이곳에서 만난 이들이 교회의 벽없이 친해지고 모두 은혜받고 돌아가길 소망한다"고 했다.

은정감리교회 학생부 교사로 캠프를 총괄하는 김승현(34)씨는 "팬데믹 후 교회학교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음세대를 위한 캠프를 진행한 것에 감사하다"며 "준비 과정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캠프는 예배로 시작됐다. 예광교회 청년대학부 김진혁 전도사는 '살아있는 예배 vs 죽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 전도사는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 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왕초보 악기 맛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역자들로부터 드럼 일렉 피아노 등 악기와 음향기기를 다루는 방법을 배운 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독여성 청년커뮤니티 센 Saint언니 대표 최가슬씨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라' 주제 세미나를 통해 각종 중독에 무너지기 쉬운 시대 속에서 다음세대가 거룩함으로 영성을 무장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캠프는 '다음세대의 예배 회복'을 목표로 하지만 딱딱한 형식의 예배 대신 다음세대의 눈높이와 흥미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악기 연주와 댄스, 영어 등으로 예배하며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프로그램, 예배자 영성을 배우기 위한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저녁 집회에서는 찬양팀 디모테오와 워십퍼스의 찬양 인도, 손득중(부천 한나래교회) 목사와 주찬양(주찬양교회) 전도사가 말씀을 전한다.

최상일 목사는 "캠프의 모든 것이 예배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교회 다음세대가 각 영역의 전문가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배자로 먼저 세워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캠프의 마지막 순서인 '블레싱' 시간에서 참석자들을 이 시대의 다윗으로 축복할 것"이라고 했다.

교회는 캠프 내용을 체계화해 오는 3월부터 교회 방과후 학교 '데이빗스쿨'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북관계 갈수록 악화하지만 평화통일 반드시 온다"

제17회 통일비전캠프 열려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대북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서도 평화통일을 꿈꾸는 이들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부흥한국 평화한국 예수전도단 등 주요 통일선교단체가 23일 서울 은평구 팀수양관에서 제17회 통일비전캠프를 열었다. 전날부터 사흘간 열리고 있는 캠프에서는 통일선교사역자부터 탈북민, 통일에 관심 있는 청년 등 참석자 200여명이 모여 현 대북상황을 진단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나눴다.

주제 강의를 맡은 예수전도단 설립자 오대원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 사랑해주셨듯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불의가 있는 곳에 공의를, 억압받는 곳에 평화를 주는 역할을 감당하자"고 독려했다. 북한의 경제 정치 등의 상황을 나누며 북한 주민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는 "코로나19 기간 북한의 쌀 1kg의 가격이 7000원에 육박했고 지난해 말이 돼서야 코로나 이전으로 물가가 안정됐다"며 "북한은 이례적으로 지난해 대풍작을 이뤘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과장됐으며 군수사업만 크게 활성화됐을 것"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정부의 시장·유통통제가 계속될 텐데 김정은 정권 초기 폭발적 소비문화를 경험했던 북한 주민들이 이 정책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하충엽 숭실대 교수, 주도홍 전 백석대 교수, 김명선 예수전도단 대표, 배기찬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이 강사로 나서 참석자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심었다.

참석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이기쁨(30)씨는 "캠프 참석 전에는 남한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고 도와야 할 사람도 많은데 왜 북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었다"며 "강의를 듣고 난 후 하나님이 통일을 위해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단비(28)씨도 "개인적 문제에 매몰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통일에 대한 이상을 가지자는 강의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고형원 부흥한국 대표는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기독교인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이 햇빛을 비추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며 "참석자들이 이 캠프를 통해 핍박받는 북한을 사랑하고 통일을 큰 사명으로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약도 사후 치유보다 예방이 최선"

교계가 함께 마약 예방운동 나선다

청소년 마약 환자가 하루가 멀다하고 급증하는 '마약 팬데믹'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계를 예방운동의 본산으로 삼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22일 한국청소년마약예방운동본부(한청본·이사장 심하보 목사)가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고 서울 은평제일교회(이예경 목사)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사장 심하보 은평제일교회 원로목사는 지난해 42년 동안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청소년 마약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출정식이 그 첫걸음인데 청소년 마약예방 사역에 100개 교회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0대와 20대 마약중독 환자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해 전체 마약 중독자의 약 34%를 차지했다. 한청본은 사회 문제로 대두한 청소년 마약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심 목사는 "마약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많지만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후 치유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는 이미 마약의 늪에 노출된 후이고 치료비용이 대거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청소년에게 이른바 '언어 백신'을 사전에 처방해 마약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 악의 근원이라는 걸 깨우치고자 한청본이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한청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펼친다. 우선 온·오프라인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현장에 파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강사와 상담사 등 인력도 양성한다. 이들은 실제 피해자를 내세워 마약이 끼치는 위험성을 교육한다. 예방 활동에는 청소년의 동참도 독려한다. 교내에 예방 동아리반을 구성해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이 자체적으로 마약 특별 감시단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교계 참여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합쳐 마약 예방운동의 본산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활동 자문을 담당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적어도 100개 교회가 이런 활동에 참여한다면 마약 팬데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 '가나안 성도' 늘어… 19~29세 45% 최다

목데연 '한국인 종교동향' 조사

직장인 김윤지(가명·25)씨는 최근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 청년부 등 신앙공동체에서 얻는 기쁨보다 피로감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22일 "일하러 나가면 일에 치이는데 교회에서까지 관계의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했다. 청년 문제에 대한 구시대적 인식도 교회에 거리감을 느끼게 된 또 다른 이유라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신지민(가명·30)씨 역시 특유의 집단문화에 지쳐 교회를 떠났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분기별로 교회 봉사를 다닐 정도로 열정적으로 활동했지만 교회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대화하는 게 부담스러워졌다. 신씨는 "대면 예배에 나간 적도 있지만 기쁨도 잠시였다"며 "'요즘 뭐하냐'는 간단한 안부 인사에도 할 말이 없어 위축됐다"고 털어놨다.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개인 신앙을 유지하는, 이른바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이 국내 젊은세대 사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적 현상인 SBNR은 제도적 종교에는 관심이 없지만 영적인 차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이들을 지칭한다. 한국의 '가나안' 성도가 대표적이다. 이런 동향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3 한국인의 종교 현황'에서도 나타났다. 만 19세 이상 성인 475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나안 성도 비율은 19~29세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39세가 35%, 40~49세는 36%로 다소 높았다. 50~59세는 27%, 60~69세는 19%였으며 70세 이상이 17%로 가장 낮았다. SBNR 현상은 청소년 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중·고등학생 700명 중 가나안 성도 비율은 평균 36%로 나타나 성인 평균 27%에 비해 9%p 높았다. 특히 고등학생 가나안 성도는 46%로 조사돼 2명 중 1명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지난 연말 공개된 미국 설문조사기관 퓨리서치 통계에 따르면 자신을 SBNR이라고 표현한 18~29세와 30~49세는 모두 24%로 나타났다. 50~64세는 22%, 65세 이상은 17%로 나타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SBNR과는 거리가 있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가나안 성도를 포함한 SBNR은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기에 기성 교회에 새로운 가능성이기도 하다"며 "신앙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교회가 SBNR의 다양한 영적 욕구에 주목해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청년 목회자인 이종찬 벧엘선교교회 전도사는 "진리를 찾으려는 '영적 구도자'가 젊은 층에서 적지 않다"며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피종진목사 1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월) 오전 Blessing Event New Year
2(화) 오후 수원 금호교회(김철수 목사) 주최 : 한미연합 부흥강사단(KURT)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010-2238-3999
3(수) 오후 송추 반석기도원(원장 고권능 목사) 010-2391-3004
저녁 화성 순복음축복교회(오영대 목사) 0101-9489-1730 주최:순복음축복교회 가산성결교회 남수원영락교회 정남중앙교회
4(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5(금) 오전 국민비전신년하례(장소: 국민일보12층)
5(금) 오후 서울 종로 여전도회관 주최: 지구촌세계선교협의회(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6(토) 오전 서울 명동교회(최요한 목사) 010-3767-0347
7(주일) 저녁 용인 새에덴교회 신년축복성회(소강석 목사)
8(월) 오전 위드(With) 부흥사협의회(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대표총대 장사무엘 목사) 신년하례회 장소: 예성영성원
8(월) 2시 재미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사단체총연합 임원조직 및 신년축복성회 장소: 예성영성원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상임총재 한영훈 목사, 중앙대표회장 장사무엘 목사
8(월) 저녁 아산 양무리교회(계희원 목사) 010-5148-4895
9(화)~10(수) 울산 순복음교회(이은형 목사) 010-5457-0090
11(목) 오후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주최: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춘 목사, 대표회장 김재홍 목사 010-9068-9197
11(목) 저녁 서울 강남순종교회(오승준 목사) 010-3942-8434
12(금)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주최: 교회본질예배회복운동본부(총재한오한 목사) 010-8869-2361
12(금) 저녁 서울 위대한약속교회(임미향 목사) 010-6201-8374
13(토) 오전 Blessing Event
14(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제235차 해외성회(235th Overseas Assembly)
15(월) 일본(JAPAN) 동경 총회신학(학장 정스데반 목사)
16(화) 일본(JAPAN) 나리타 사랑의교회(정스데반 목사)
17(수) 일본(JAPAN) 나리타 갈멜산기도원(원장 김태실 목사)
18(목) 일본(JAPAN) 동경 우에노공원 야외전도집회(주관: 日韓中 선교문화교류협회)
19(금)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부흥사회(대표회장 이석우 목사) 010-2250-4690
19(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랑 목사) 010-8331-3431
21(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22(월)~23(화) 고흥 엘림수양관(원장 김지선 목사, 원목 함태형 목사) 010-8653-1213
24(수) 전주 학산교회
25(목) 오전 (재미재단법인) 세계복음화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실무총재 한영훈 목사)
25(목) 오후 대구 주암산기도원(준비위원장 채광명 목사) 010-5452-1691
26(금) 오전 서울 중흥교회(엄신형 목사) 주최:World 기독교총연합회 이사장 정진희 목사 010-7567-8291
26(금) 오후 4개단체연합 신년축복성회(대회장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27(토) 오후 인천 마라나타복음방송(김드보라 목사) 010-8954-8956
28(주)~31(수) 서울 임마누엘교회(장요한 목사) 010-2393-0616
29(월) 오전 오산 아가페힐링교회(채광명 목사) 주최: 국제마약경찰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www.nsca.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새해 최대 목표는 한국교회 연합"

한국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 신년 포럼

한국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양기성 목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교회(최재성 목사)에서 신년 포럼(사진)을 열고 웨슬리언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의 연합을 위한 사역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특강을 맡은 김영택 성결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이단의 역습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는 연합을 통해서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하나의 신앙고백 주기도문 찬송가를 사용하는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연합이 수월하다"며 "한국교회는 순복음교회의 성령운동, 장로교회의 성경연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 루터교의 경건주의 등 서로의 장점을 비평적으로 수용하려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교를 맡은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전 대표회장은 "우리 교회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교만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며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된 교회를 살리기 위한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하자"고 권면했다.

양기성 대표회장은 "오늘을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신학의 통일과 연합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교의 창 (230)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글로컬(Glocal) 시대의 선교 방안(方案)

21세기를 특징짓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바로 세계화와 지역화이다.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글로컬(Glocal) 이다. 글로컬(Glocal)은 세계를 뜻하는 글로벌(Global)과 지역을 말하는 로컬(Local)의 합성어다. 그 의미는 "세계를 향하면서 지역 설정에 맞춘다."라는 뜻이다. 글로컬 시대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가 함께 맞물려 있다. 이를테면 세계적 문제가 한 지역에 영향을 주고 한 지역의 사건 사고나 쟁점(Issue)이 세계에 영향을 준다. 이처럼 세계가 하나로 연동되어 있기에 선교정책도 상황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기독교 선교가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전통적 방법에 고착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사역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 상상해보자. 21세기 4차원의 전쟁판에 2차원적인 창을 든 기마병을 출전시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도 지나가는 소가 웃을 것이다.

1. 글로컬 시대를 유발하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미국의 저명한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E. Lorentz)는 1972년 12월 29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미국 과학발전학회에서 "브라질 아마존에서 서식하는 나비의 날개 짓으로 인해 텍사스 주에 회오리바람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답은 "그렇다" 이다. '나비의 반복적인 날개 운동은 주변 공기의 움직임에 미세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것이 작고 약한 기류를 형성한다. 이 기류는 대기에 변화를 주며, 대기는 변화에 따라 연속적으로 반응한다. 결국 이러한 반응들이 지구의 기상 현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최후에는 보다 세력이 확장된 회오리바람을 만들게 된다. 로렌츠의 이러한 발표는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란 초기의 작은 원인이 결국은 커다란 결과로 발전해 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얼마 전까지 세계를 강타했던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이 좋은 실 예이다. 이는 2006년에 미국에서 익명으로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조금씩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윽고 2017년 10월에 이르러서는 성범죄, 성폭력 피해가 큰 반향을 일으켜서 공개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헌데 지금은 성폭력 사건이 터지면 언론 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기사화되기 일쑤다.

2. 글로컬 시대의 선교환경 변화

지금 세계는 문명사적으로 볼 때 제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식정보(IT) 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이어지고 있다. ICT와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통합은 세계를 통제하는 글로벌 전자통제 시스템의 가동을 가능케 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초특급 슈퍼컴퓨터와 위성을 연결하여 하나로 통합된 글로컬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눈앞의 선교현장도 확연히 달라졌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나님의 선교"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다국적 교회와 다방향 선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예전엔 한 지역 안에 한 민족만 복음화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한 지역 안에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다언어적 인간 모자이크 사회가 형성되었다. 복합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시대임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 속에 선교와 선교지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글로컬 시대는 선교를 "가라(Go)"의 개념으로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머문 자리에서 "오라(Come)"의 개념으로도 확대시켜야 한다. 이는 "모든 곳으로부터 모든 곳으로"란 구호(Slogan)와 함께 선교전략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3. 글로컬 시대의 선교동원

중국에서 우스갯소리로 쓰는 말이 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안 되는 길은 찾아 가면 안 되고, 안 되는 일도 되는 길을 찾아 가면 된다". 이 말은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작금의 선교 패러다임으로는 청년들을 동원할 수 없다. 지금 젊은이들에게 "자기 관 짜고 선교가라."고 하면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는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첫째는 선교여행(Vision Trip or Mission Trip)을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기간은 2주 미만이다.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는 청소년 시절 타문화권 선교 경험은 저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줄 것이다. 둘째로 단기선교(Short Term Mission)를 전문성이 있는 청년들과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기간도 2주 이상 2년 미만이다. 이 단계는 저들이 현장선교사와 함께 협력 사역을 하게 한다. 단기선교는 여러 사람보다 숫자가 적을수록 좋다. 셋째는 장기 선교사(Long Term Mission)를 차출하여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것이다. 선교사로 파송 받을 사람은 헌신도와 전문성 그리고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성품이어야 한다. 기간은 2년 이상 종신이다. 아무튼 Mission Trip-Short Term Mission-Long Term Mission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남녀 그리고 장애인까지도 군대에 간다. 몰몬교는 이단인데도 2년간 젊은이들이 해외선교 봉사를 한다. 우리 기독교회는 여기에 비교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이다. 선한 목적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제도화된 정책이 없이는 사람들을 선교적으로 동원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을 주목하며 동기부여하고 저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능한 선교현장으로 내몰아야 한다.

4. 글로컬 시대 선교를 선도할 전략 연구소(R&D)

한인교회의 세계선교 이대로 좋은가? 우리 선교의 허(虛)와 실(實)은 무엇인가? 우리는 도전하는 선교의 장벽들을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한인교회는 힘을 합쳐 세계선교를 위한 전략연구소(Research and Development) 설립해야 한다. 국가나 일류 대기업들은 저마다 연구소를 설립해 전문 요원들을 배치하고 있다. 모든 기업체들은 연구 개발이 없이는 곧 한계상황에 부딪치게 되어있다. 어쩌면 R&D 사역은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의 흥망성쇠(興亡盛衰)을 결정하게 된다. 1970, 80년대 일본의 전자 사업은 세계를 지배했다. 헌데 지금은 Made in Japan이 어떠한가? 한참 뒤쳐졌던 한국 기업들에게 모두 추월당하고 말았다.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 한인교회 지도자들이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오직 각개 전투식으로 눈앞의 사역에만 몰두해 있으면 우리 선교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연합적 투자가 필요하다. 한인 세계 선교사(KWMF)회에는 오랜 사역 경험과 이론적 실력을 가춘 선교사들이 상당수 있다. 한시라도 바삐 저들을 네트워크화 해 선교 전반의 전략 연구가 진행되고 고급 자료들이 산출되게 힘을 모아야 한다.

맺음 말

한인 세계 선교가 한 때 반짝한 운동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아니면 100년을 내다보며 탄탄하게 선교적 공적을 쌓아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정세와 영적 대결이 첨예화되고 있는 글로컬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아이디어와 톡톡 튀는 창의력이 필요하다. 바둑에서 하수{下手}는 눈앞의 한, 두점 따먹기에 급급하나 고수(高手)는 조급해하지 않으며 멀리 내다본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지역(local) 선교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나홀로 경쟁력 강화와 성장에만 집중하는 글로벌(Global) 선교도 문제다. 글로컬(Glocal) 선교로 나가야 한다. 그것은 글로벌 안목으로 접근하되 행동은 로컬 특색에 맞게 맞춤형이어야 한다. 한인선교의 단일문화적 한계들, 관계 중심적으로 일하는 약점들, 단기간의 결실에 집착하는 경향들을 극복하고 성경에 입각한 선교원리를 따라 미래 속에 오늘 그리고 오늘 속에 미래를 투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격랑들도 굴하지 않으며 찬란한 열매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글로컬(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이 결합된 용어이다.
이 시대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가 함께 맞물려 있다.
선교정책도 상황(Context)에 맞게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창조적이어야 한다.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0강 라합, 요단, 기념돌 그리고 여리고 (3) (여호수아 1-9장)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가나안을 동쪽에서 치고 들어가며 요단 강을 건너면 첫 성이 바로 '여리고 성' 입니다. 지금까지도 당시의 건축 기술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고 견고한 성으로 알려진 여리고 성을 완전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도 가나안 전쟁을 승리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여리고 성의 왕과 백성들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성문을 닫고 단단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수 6:1).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 성의 왕와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다고 합니다(수 6:2).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전쟁은 이미 승리를 얻고서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 7명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모든 군사는 아무 말도 없이 여리고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그렇게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그 성을 7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것인데 그때 백성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수 6:3-5).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들어간 사건과 같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보면 말이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수 6:6-16).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수 6:17,18)고 합니다. 또한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줍니다(수 6:17,22,23,25).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멸하신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을 선포하는데(수 6:26) 이 일은 후에 실제로 일어납니다(왕상 16:34).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수 6:27).

심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리고 성이라는 견고한 성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그들 안에 큰 성 여리고도 무너뜨렸으니 작은 성 아이는 '문제도 아니다'는 마음입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했지만 40년전 가나안을 정탐한 자들이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았던 것처럼(민 13:33) 이들은 지금 스스로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힘있는 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수 7:2,3).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를 스스로 판단, 결정하여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여호수아부터 백성들까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겼는지 묻지만(수 7:4-9) 패배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수 7:10)고 하시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수 7:11) 고 하십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첫 성이므로 첫 재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보고 탐내어 가졌다'(수 7:21)는 아간을 찾아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수 7:14-25).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간은 바로 이스라엘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간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놓고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 조차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간이 죽은 그 아골 골짜기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수 없음'이 이제 점점 더 극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커질수록 구원자의 필요성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죄의 생각의 정체를 알고 마음에 품지 말라 (마27:39-43) 찬 348장

마귀는 오늘도 죄의 생각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인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고 자기와 같이 영원한 멸망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마귀의 인격 특징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귀가 일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생각으로 나타난다. 그 생각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어떠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 본문의 대적한 사람들은 지금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가운데서 살고 있다. 물론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가운데서 살고 있다. 농담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죄에서 나타나는 생각을 항상 경계하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화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라 (마28:1-6) 찬 436장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생각하는 것을 보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갔다고 하였다. 동일한 생각들이 그들 안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 생각이 잘못이다. 사람은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생각을 믿고 산다. 구원을 받은 자는 이러한 생각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대로 동일한 애굽인의 사상에서 살았다.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도 같은 것이다. 생각에도 생명의 생각이 있고 사망의 생각이 있다.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진리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수님의 빈 무덤과 말씀대로 생각하여 보는 빈 무덤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함이 없으면 죄에서 나타나는 생각을 믿고 살게 된다. 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는 항상 주님이 임하여 계심을 알고 보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옛 생각에서 구원을 받으며 생명의 생각과 동행하며 살아라.

수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마28:20) 찬 435장

이제는 성경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동일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셨고 나에게 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님이 주인이다. 주인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다.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항상 같이 하시는 주님을 무시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 주님을 높이며 섬기라. 장차 주님 앞에서 뵐 날이 있다. 그때 주님에게서 칭찬과 영광을 받는 자로 서도록 살아야 한다. 나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주님이다. 나의 영원한 복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인생이 되라. 주님이 계시는 사람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목 죄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눅1:67-71) 찬 14장

성령께서 사가랴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예언한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내용을 말하게 하신다. 오늘날 죄가 사람에게 임하여 죄의 감동으로 인하여 범죄 하는 것이다. 죄에서 나타나는 생각들로 인하여 그 생각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죄는 사람을 통하여 죄가 일 하고 죄가 나타나고 한다. 사람에게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죄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지를 가지고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선악과를 가지고 대화를 하지 말라 선인가 악인가 함이 아니라 죄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를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금 언약의 하나님 (눅1:72-77) 찬 248장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분이시다. 나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며 충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언약을 받은 우리는 그 언약을 굳게 믿어야 한다. 그렇게 믿을 때 언약을 이루심을 은혜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언약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면 그 언약을 불신하고 버리도록 미혹한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굳게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지 말라. 언약을 불신하고 육신의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게 이루신다. 인간 중심으로 언약을 이루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신다.

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눅1:78-80) 찬 618장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둠에서 사망에서 사는 사람이다. 어둠에서 살기 때문에 주인을 알 수 없고 자신을 알 수 없고 자신에게 다가올 영원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사망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일평생 사망의 생각으로 죽음의 고통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므로 인하여 어둠이 죽음이 떠나게 하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 빛을 받아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죽음이 벗어지고 여기서 자유를 받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 받은 자가 생명의 빛의 실상을 알고보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어둠은 빛 앞에서 항복하고 물러간다. 어둠의 매임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영적 어둠에 있다. 그러한 곳에서 빛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살아야 어둠에서 형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

교회음악 이야기(51)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해마다 3월 17일이면 성 패트릭 데이 (St. Patrick's Day)로서 이곳 미국에서는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날은 5세기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 (St. Patrick, 386-461)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초록색 계통의 옷을 입고, 세상은 온갖 초록으로 물을 들여 축제하는 날입니다, 특히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세 잎 클로버로 디자인된 초록의 물품들이 유난히 눈에 뜨여 인상에 남는 날이기도 합니다. 패트릭은 원래 로마계 브리티시 영국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16살에 아일랜트 켈트족(Celts) 해적들에게 납치당해 아일랜드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비록 혹독한 노예 생활 속에 육체적 고통이 심했지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게일어와 아일랜드 관습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연 세계를 보며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년 후 그는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자신을 힘들게 했던 아일랜드 켈트족을 품기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고 훈련을 받고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아일랜드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후대에 성인의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성 패트릭과 깊은 연관이 있는 우리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Be Thou My Vision)"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소망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찬송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찬송에 보면 일반적으로 작곡가와 작사가의 이름이 속하는 곳에 "Irish Melody" 및 "Anonymous"와 같은 모호한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내면에 바로 패트릭의 사역을 반영한 가운데 이 곡이 만들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AD 4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부활절 일요일에 현지 아일랜드 왕은 누구도 불꽃이나 촛불을 켜는 것을 금지하는 이교 드루이드 축제(Druid Festival)를 갖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 패트릭은 이것에 반기를 세우며 목숨을 걸고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슬레인 언덕(Slane Hill)에 올라가 거대한 불을 피웠습니다. 고대 아일랜드 사람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은 모두 패트릭이 왕에게 반항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빛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며 오직 그분만이 찬양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몇 년 후, 무명의 작곡가가 이 패트릭의 영웅적 행위를 기리기 위해 멜로디를 썼습니다. 지금은 잊혀버린 작곡가가 "슬레인(Slane)"이라고 불렀는데, 패트릭이 빛을 발한 언덕인 슬레인 힐(Slane Hill)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곡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멜로디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전설적이지만, 가사 뒤에 숨겨진 역사는 조금 더 모호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6세기 아일랜드 시인 성 달리안 포게일(St. Dallán Forgail, C.560-640)이 성 패트릭을 기리기 위해 "Rop tú mo Baile"이라는 제목의 게일 시를 썼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포게일의 시 사본은 14세기에 나온 것으로, 저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포게일과 시를 연결하는 다른 역사적 증거가 없기때문에 "Be Thou My Vision" 가사의 실제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 노래를 "무명 (Anonymous)"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Slane"과 "Rop tú mo Baile"은 모호해졌습니다. 한 때 알려졌던 그들의 저자는 시간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성 패트릭이 슬레인 언덕에 불을 붙인 지 거의 1500년이 지난 1905년에 잊혀진 찬송가가 시간의 안개 속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25세의 대학생 메리 번(Mary Elizabeth Byrne, 1880-1931) 은 14세기 사본 "Rop tú mo Baile"을 발견하고 처음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의 유명한 찬송가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찬송이 주는 분명한 교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산 소망을 일깨우게 합니다. 벧전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 유대인들에게 산 소망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이란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자 패트릭이 당시 서슬 퍼런 최고의 권위자 아일렌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스도 복음의 횃불을 환히 밝히게 된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 (Clive Staples Lewis, 1898-1963)는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무감한 상태(Apathy)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합법적인 목적들을 추구하되 하나님을 그보다 앞세울 준비가 되어있는 마음가짐을 뜻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이 루이스가 말하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절규하며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 26:39절 중반)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의 원리에 절대 순종하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절 후반) 고백하는 이론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산 소망을 소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 소망을 붙들고 주어진 일들에 열심히 노력하며 모든 조건에서 평화를 만들고, 감사를 만들고 소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록 환경이 평화를, 감사를, 그리고 소망을 고백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Be Thou My Vision)"라는 찬송을 진정성 있게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iyoon@wmu.edu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78.삼위일체 아버지 (남자, 아버지, 남편)

인터넷에서 본 아버지의 3가지 사명과 역할에 관한 작가 미상(未詳)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의 이름은 남자입니다. 남자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식구들이 모여 기다려도 일 있으면, 늦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 생일날을 기억하지 못해도, 친구와 한 약속은 어김없이 지켜야 의리 있는 사나이인 줄 알았습니다. 가정의 사소한 즐거움보다는 직장과 조직에서의 성공이 더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진짜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제 보니, 나의 이름은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머리 한 번 쓰다듬어 주길, 다정한 말 한 번 건네주길 바라는 아버지였습니다.

나의 이름은 남편이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든든한 자리를 지켜주길 바라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정성들여 만든 반찬을 함께 먹어 주고, 바깥에서 있었던 일을 소곤소곤 이야기하며, 언제나 친구같이 다정하게 있어 주길 바라는 남편이었습니다. 나의 고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남편이었습니다."

성경상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천사(사탄:타락한 천사), 그리고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성자) 하나님(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탄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사탄의 삼위일체'는 용(사탄:계

12:7-9), 짐승(적 그 리스도:계 13: 1-4), 그리고 거짓 선지자(계13:11-18)로 나타나 하나님을 흉내내고, 대적하고, 이 세상을 정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의 표(666)을 받도록 획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자, 위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아버지도 삼위일체가 있으니, '삼위일체 아버지'는 곧 '남자(직장과 조직, 친구와 이웃관계)와 아버지(부모와 자식관계), 그리고 남편(부부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상 수의 개념으로 볼 때, '3'은 '절대자의 수'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늘이 3층으로 구성된 것처럼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또 노아의 방주도 3층이며,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는 등 '구원'의 의미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3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리는 준비기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요나, 등은 모두 3일간의 준비를 거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즉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성을 말함입니다.

'삼위일체'란 몸은 하나이지만, 3가지 사명과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결혼 전에는 본질상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남자'로서 사회적으로 직장과 조직에서 맡은 일에 열심히 충성하며, 친구와 이웃관계에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이해와 관심으로 보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 양육하며,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헌신적 희생적으로 내 몸과 같이 아끼며 사랑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아버지'에서 보듯 결국 남자와 아버지, 남편은 서로 다른 객체로 보이지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셔서 사명과 역할 감당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사탄의 삼위일체'인 용(사탄)과 짐승(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과 비겨 대적할 정도로 막강하여 인간들을 미혹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사명감당에 완벽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삼위일체 아버지'인 남자와 아버지 그리고 남편은 본질상 범죄로 타락한 존재이므로, 3가지 직책과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이 가정문제가 양산되는 근본적, 본질적 근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여성화, 중성화되어 가는 아버지의 남성상을 시급하게 회복시켜야 하고,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사명을 아버지학교를 통하여 배워 깨달아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힘쓰며,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때, 삼위일체 아버지가 완성될 것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동부 후이수이 먀오종족

▲ 인구
14,000명

▲ 종교
민속 종교 94.5%, 무교 5%, 복음화율 0.5%

▲ 복음 매체
성경 번역 필요, 복음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천년동안 여러 지역을 점령한 먀오족의 디아스포라이다. 초기 서양 선교사들이 구이저우성 북서부의 복음에 호의적이었던 종족들을 중심으로 사역했다. 반면 동부 후이수이 먀오족과 같이 구이저우성 남부에 살던 먀오족들은 간과되었다. 소수의 동부 후이수이 먀오족 신자가 있을 수 있으나 활기찬 신앙 공동체는 거의 없어 보인다.

▲ 기도제목
1. 복음의 불모지인 동부 후이수이 먀오족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을 보내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2. 동부 후이수이 먀오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베드로 진서 15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팬데믹 기간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아시다시피 팬데믹 기간에는 어지간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지 않고 입원했다 해도 하루 정도 지나면 퇴원을 시켰는데 아내는 거의 8일 간을 병원에 있었다. 코로나는 아니었지만 병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어쨌던 병원에 있는 동안 나는 매일 병원에 출근해야했고 참 피곤한 시간이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시간과 나날이 늘 건강하다 생각하고 무심하게 지난 그런 날들이 아닐까?

완치 된 후 나는 새벽기도회를 다녀오면 아내의 방문이 열려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닫혀있는지, 때로는 새벽기도회가 없는 날은 아내가 부엌이나 자신의 작업방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관심사가 되었다. 혹시 방문이 닫혀있으면 가슴이 덜컹하며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다 아내가 방문을 열고 나오거나 때로는 아내가 작업하는 방에 앉아있거나 움직이는 것을 보면 나와 아내는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를 한다. 사모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목사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기적의 연속이란 생각을 한다. 지난 밤 아내나 내가 평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녕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제 밤이 안녕했고 오늘 아침이 안녕한 것이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는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내에게는 내가 살아있어 안녕한 것이 어찌 감사한지.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revpeterk@hotmail.com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Friends of Hope
KAFHI 미주기아대책

희망친구
기아대책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집회

The Calling Concert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김도일 담임목사
(858)278-3210

2/2 (금) 저녁 8시
유은성 김정화 홍보대사 찬양집회

토랜스 선한목자 교회
이승혁 담임목사
(310)748-6878

2/4 (주일) 오전 11시
유은성 김정화 홍보대사 찬양집회

나성 한미교회
홍충수 담임목사
(626)444-0058

2/4 (주일) 오전 11시
유원식 회장 간증

유원식 | 기아대책 회장

現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회장
前 한국오라클 대표이사 사장

김정화 | 배우

SBS 동상이몽 2 출연
SBS 스토브리그 (2019) 출연 등
기아대책 홍보대사

유은성 | CCM 가수

대표곡 :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등
기아대책 CCM 홍보대사

후원문의 : 희망친구 미주기아대책(KAFHI)
Pay to order KAFHI, (Memo 우크라이나 겨울나기)
주소 |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이메일 및 전화 | shchung@fh.org (703)473-4696